

○ 연세대학교 신 ○ 성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법률과 관련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도 뿌듯하고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두 봉사활동 모두 평소애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였기에 더욱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국회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세분화된 각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을 보며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던 뉴진스 멤버 하나의 직장 내 따돌림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들까지 다루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껏 국정감사는 정부의 행정부처들을 감시하는 역할만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범주에서 사회적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 힘들었던 세부적인 정보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의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껏 대정부질의를 등 국회의 모습을 보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들의 태도나 질의의 내용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바라보며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이 뜻깊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과 같이 우리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에 걸맞게 민의 눈높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접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 등과 판례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길이가 매우 길고 어려운 법적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는 판결문을 읽고 그 속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로 판결을 내렸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 속에서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나 논리 등을 배우고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행정 소송과 판결문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마무리 짓지는 못한 형사 소송을 각각 하나씩 리서치하였는데, 각 재판에 성격에 따라 필요한 논리나 법리적 해석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에서 각급심의 판결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보며 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 능동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떠한 판결이 더 논리적인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인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리적 해석은 어려운 과정이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규제하고 판단하는 틀이기 때문에 좀 더 대다수의 보편적인 눈높이에 맞는 법적 해석과 판결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껏 받아온 사회적 혜택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저 또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 왔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법률과 관련된 봉사를 하여 더욱 뜻깊었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다시 참여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안 ○ 규

법은 모든 개별내용을 기재할 수 없어 본질적으로 보편

성을 띠고 그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적용 과정에 선 언제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석을 통해 개별과 보편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모든 법률가들의 과업이며,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법률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해석하고

사회(자원)봉사 소감문  
2024년도 가을학기 소감문

판결할 것을 전제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한편 정쟁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과 정부와의 당파적 행위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며 이것들이 대중에게 비춰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마

저 정쟁에 입각해 바라보려는 경향이 생겨난다. 예컨대 야당 국회의원의 행위에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여당 지지자에게서는 사법적 정의를 구현한 인물로, 야당 지지자에게서는 여당에 편승해 사법적 정의를 외면한 인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각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당파성의 맥락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이념에 대한 탁상공론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각 권력기관의 모든 행위가 정말 당파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어떻게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은 필수활동인 국정감사와 자율활동인 판결문리서치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국정감사가 필수활동인 이번 봉사활동은 과연 모든 국정 사무들이 당파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국회의원들이 여당 출신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당대표의 위증교사 등의 사법적 문제를 고르게 다루었고, 또한 재판 지연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업무실태와 이념을 검토, 논의하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민생에 관해 소방대원들에 대한 문제지적과 체계적인 대응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따금 과도하게 특정 당에 치우쳐진 언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입법부는 대외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입법부 내에서는 양당간의 상호견제가 적절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정당의 행위가 당파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상호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인 국정사무가 건설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국정감사임에도 행정부의 몇몇 인사들은 업무상 비공개주의를 근거로 답변을 부실하게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은 사법부의 활동을 국민들의 삶과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은 각 피고인들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판사분들의 법률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을 느낀 판결이었다. 1심은 조항에 대한 반대해석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한 반면, 항소와 상고에서는 반대해석의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로부터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죄를 구성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결론 부분에선 적용되는 각 조항에 근거해 각 피고인들의 형량을 행위에 비례하여 주문하였는데, 비록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에게 형량을 지우는 것은 중대한 일이고 그만큼 판사분들께서는 형량의 비례성 등을 고심하여 형량을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임금청구의 소는 표면적인 증거를 조합하여 이면의 객관적인 내용을 이끌어내는 판사분들의 고심과 능력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었다. 피고 회사는 계약서상 타회사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로계약자들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내용과 절차를 적용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심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법령의 시행 시기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위의 관계성을 핵심 근거로, 그리고 항소에서는 최저임금과의 비례성 등의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피고의 해당 행위가 법망을 회피하고 임금을 덜 지급하기 위한 편법행위임을 밝혀내어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흠어진 증거들로부터 위법 여부를 판

단하기까지, 원심에서부터 항소 등에서 재판관분들이 점차 논리를 탄탄하게 구성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판결문이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현 대한민국의 각 권력기관의 업무 실태에 관한 의문을 다소간 해소할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권력분립 체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의원들의 질문 대부분이 정파적인 관점에 기초하며 혹 몇몇의 위원들은 그것으로만 점철되는 경우가 었보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호견제를 통해 각 당과 행정부처의 잘못된 부분의 은폐를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소간의 행정부 인사들이 불성실한 답변을 했으나 여야당 의원들의 상호견제 속에서 행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질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판결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념과 이해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호견제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이 적절히 지켜지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기반으로 정치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 덕분에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서울대학교 김 ○ 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법학에 대한 관심과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라는 두 가지 주요 업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법학적 사고방식과 더불어 법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법률과 정책이 입안되고 점검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와 법률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모습을 확인하며, 법률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정책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보며, 법률가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법을 다루는 것을 넘어 정책과 사회적 현실을 조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제가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학 공부를 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인사이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는 법적 판단의 근거를 탐구하며 법률 체계의 논리와 구조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판결문을 깊이 분석하며, 법원의 판결이 단순히 법조항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실관계와 기존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적 언어와 논리의 정교함이 법적 판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제가 로스쿨에서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법률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정책과 법률이 어떻게 현실에서 연결되는지 이해했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적 사고방식과 논리 구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로스쿨에서 공부하며 나아가 방향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이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 겨울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새로운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법률 관련 리서치와 시민들의 법률 문제 해결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률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학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을 단순히 법조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사회적 문제 해결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은 제가 법학과 현실의 교차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학기에 새롭게 시작할 활동 또한 이러한 목표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고려대학교 김 ○ 후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내게는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진행한 3번째 학기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지난 두 학기의 봉사활동은 국회의원 공약 이행조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약분류, 판결문 리서치 등 다양한 방면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이번 학기의 봉사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총 3개의 피감기관에 대한 내용을 이행했습니다. 이는 국방부, 경찰청, 고용노동부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때문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잘 모르는 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보다 제게 조금이라도 익숙한 피감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능숙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안건을 잡아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회수가 늘어나면서 감사위원들이 피감기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질의와 그 개선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미흡하고 판단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피드백이 실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권력분립에 대해 고등학교 때의 사회탐구 과목 '법과 정치(現 정치와 법)'나 융합전공 수업 등에서 가볍게 학습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직접 모니터링 하며 1년 동안 각 국회의원실에서 피감기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해왔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미흡해 보이는 감사위원들도 보였지만, 대다수의 감사위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피감기관의 그릇된 행적을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막연히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준비하라는 듯한 이야기 보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은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학교에서 학부의 마지막 학기를 병행하며 일전의 봉사활동들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필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추후에도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보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성균관대학교 강 ○ 연

2024년도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한 봉사활동은 저에게 학문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동안 대검찰청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1부와 대법원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1부를 작성하는 데 참여했으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판결문 리서치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체감할 수 있었고, 법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검찰청과 대법원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조명할 기회

를 얻었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핵심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의 기능이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국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 문제와 연결된 법적 사고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판결문 리서치는 법률적 논리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개인 간 분쟁 해결에서 법의 역할과 공정성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범죄 행위의 정의와 처벌 기준, 그리고 형평성과 정의의 균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 과정은 법률 용어와 논리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었으며,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법이 실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했습니다. 법률이 사회적 안정과 정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동시에, 그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제가 앞으로 법률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한 이 기회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학문적, 실무적 성장을 이끌어준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 ○ 일반 민 ○ 회

[1]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통해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생각해보았다.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와 불합치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더라도, 국민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접 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사는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남발하거나 탄핵(소환)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법률, 예를 들어 국회의원 특권과 같은 규정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이를 견제할 기관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2] 많은 사람이 한국의 법은 후진적이라 범죄자에 대한 무거운 형벌이 불가능하다고 분노하지만, 나는 오히려 한국의 법이 지나치게 선진적이기 때문에 교화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인권과 그들의 이성적 기능을 존중하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은 사회와의 단절 기간을 늘려 재범 가능성을 높이거나, 작은 범죄에도 극단적 처벌을 받을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가벼운 형벌은 범죄자에게 새로운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망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았다. 범인이 형식적 진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감정을 위해 범죄자의 형량을 더 높여야 할지, 범죄자라는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교화 가능성을 믿고서 현재의 형량을 유지해야 할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범죄자 교화와 사회적 정의를 조화롭

게 추구할 수 있는 법체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3] 이번 활동을 통해 법과 제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법이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요소임을 깨달았다. 법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그 신뢰는 국회의원과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공정한 역할 수행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법률 체계를 개선하고, 형사정책과 민주주의 제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민과 경험을 토대로 법률적 지식을 더욱 심화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

### ○ 이화여자대학교 신 ○ 규

더러는 로스쿨 입시의 시작과 끝이 리트라고 한다. GPA와 공인영어시험 성적, 각종 대외활동과 봉사활동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리트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것이라고. 아무런 정성적 요소가 정량적 요소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만 나는 문득 내가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 이루어 놓은 게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감은 때때로 나를 잠식하기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고는 한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어차피 학기 병행인데다 학점을 잘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하니 가볍게 채워야 하는 시간 정도만 채워 놓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봉사 시작 이후 그동안 일상을 살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던 분야들을 보게 되었고, 나는 새로움에 기반한 설렘을 느끼기도 했다. 내가 선택했던 분야들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인데, 이에 대한 후기를 간략하게나마 적어 보고자 한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정치에 대해 무지했던 나에게 가장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주었다. 부끄럽게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 깨달았을 만큼,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원회의 의원들이 무슨 화제에 대해 어떤 지적을 하는지 직접 들으면서, 현재 사회에서 크고 작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변인이기도 한 국회의원이 결점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의하는 데 있어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는 무엇보다도 판결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법학 강의들 모두 해당 법률에 관한 판례 여러 개를 분석하는 지분이 높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내가 배우는 법과 관련된 판례들을 더 깊이 배우고 싶을 때 이를 판결문 리서치와 연결 지음으로써 능동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언론 모니터링은 분석 보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힘들었던 만큼, 가장 좋았다. 동일한 화제일지라도 각 언론사가 조금씩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과연 나의 진정한 생각은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A가 아니면 B다'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그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느낀 것을 믿는 인간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공하는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에 그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듣는 것, 판결문을 읽으며 그 기저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는 것, 동일한 화제를 두고서 각 언론사의 논조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 그리고 기타 다양한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도 수행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는 살면서 사회에 존재해 왔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목도하고, 피부에 와닿는 것을 느끼고, 때로는 직접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주체는 국가의 권력에 선 자들이지만, 그들이 입법 테이بل 위로 법적 의제를 올려 놓을 때까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손으로 자격을 만들어 준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지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저 잠자는 채로 둘 수는 없다. 이 자명한 진리를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 ○ 경북대학교 최 ○ 은

기부와 봉사활동의 차이점은 그 경험이 기여자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기여하는 효용의 총량이 같더라도 봉사활동은 계산되지 않는 무언가를 내게도 남긴다는 점에서 단순 기부와 구분된다. 지난 가을 학기 동안 진행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서 나는 뿌듯함 이상의 무엇을 얻어냈던 것 같다.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이자 법조인 지망생인 나는 자연스레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가 무색하게도 입시 준비 시절부터 귀에 묻혀온 '국정감사'라는 단어의 실체를 나는 잘 몰랐고, 잘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그래서 궁금해 본 적조차 없었다. 물론 사전적 정의와 그 사회적 역할을 대강 파악하고 있었으나 내게 국정감사란 교과서 속 단어, 그저 어디선가 일어나는 일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고서야 국정감사 진행시간을 확인했고 감사가 12시간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이 걸 언제 다 모니터링하나'였다. 뒤이어 '의원들과 집행/사법부는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하나'하는 의문이 찾아왔고,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궁금했어야 하는 주제는 후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치를 배우고 있고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으로서 나는 국정감사에 진작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그것이 정의이고 나아가 자질이였다. 이 깨달음이 봉사활동이 나에게 남긴 첫 번째 의미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나에게 대한 나의 성실을 돌아보게 하였다.

두 번째 '의미'는 급하게 받아 쓴 모니터링 기록을 정리하던 중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현대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은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확인하고 국민의 목소리로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자 실제로 '국민의' 것이었던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것이 아닌 정당들의 것이었다. 당을 가리지 않고 감사를 핑계 삼아 피감기관과는 가느다란 실로 연결된 것 같은 정쟁 주제를 가져오기 일쑤였고, 의원들은 짧은 발언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했으며 무례를 과시했다. 일부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질의응답도 오고 갔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을 보며 잠깐 흐뭇하다가도 그 대화가 국민에게 널리 공유될 가능성은 요원할 것 같다는 생각에 곧 다시 씁쓸했다. 어쩌면 의원들은 현재 제도 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치학을 배우면서도 국정감사 진행 시간조차 몰랐던 나와 같은 시민들이 대다수라면, 의원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실속있는 감사 구성이 아니라 시민들의 무관심을 뚫고 그들의 뇌리에 인상을 심어줄 '장면(scene)' 연출이다. 정부를 정부답게 만드는 것이 의회의 감시라면,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감시일 것이다.

개강과 함께 시작한 봉사활동의 소감문을 쓰자니 벌써 반년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실감 난다. 시간과 공간상 제약으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 특히 국정감사 현장에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활동의 막바지에 이르러 자꾸만 아쉬웠던 점을 찾는 마음은 참여했던 활동들에서 그만큼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겨울학기에도 봉사를 이어갈 다짐을 굳힌다. 이번만큼, 아니 이번보다 더 성장하는 이 개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 ○ 서강대학교 정 ○ 준

나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한다. 이는 곧 법조인이 되고자 함과 같다. 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선망은 있었지만, 정식 법조인이 어떤 방식으로 공익에 기여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법조인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법조인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말함으로써 그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 기회는 많지 않았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에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고, 가을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내가 가졌던 궁금증에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었다.

문체위와 과방위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국회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나는 역사를 전공하기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문체위 국정감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적응하고 관련한 예상을 확충할 것을 감사위원들은 피감기관에 요구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현대사회에서, 한류와 우리 문화의 확산에 있어 인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제도적 지원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깨달았다.

중요 판례들의 쟁점과 판시사항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여러 소송의 형태,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 근거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언론에도 보도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읽어보면서, 신문 기사에 근거하여 가진 내 생각과 법원의 판단 사이의 괴리를 깨닫고, 이성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단이란 어떤 것인지 어렵פות이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다소 힘들었고, 쟁점을 찾아 나의 방식대로 간추려 정리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렸으나 거듭할수록 능숙해짐을 느끼고, 더 나은 보고서를 쓸 수 있어서 뿌듯했다.

마지막으로 신문 기사를 직접 스크랩하고, 그것을 요약해 언론사별 보도 경향을 직접 분석하는 언론모니터링을 통한 해를 관통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하루하루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끊임없이 소식을 접하긴 하지만, 다른 정보들과 뒤섞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앞의 내용은 희미해지거나 까먹기 일쑤였다. 하지만 언론모니터링을 하면서 수 개월이 이르는 시간 동안 해당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보수 성향의 언론과 진보 성향의 언론 양 측을 모두 조사하며 균형 잡힌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글을 읽었고, 정리했다. 학업과 병행하면서 때로는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뿌듯했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워 갈 수 있었다. 막연하게 동경했던 법조인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공익에 보탬이 되는지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향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서 공공선에 기여하는 좋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

### ○ 중앙대학교 양 ○ 혁

지난 여름학기에 이어 이번 가을학기도 어김없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이어나갔다. 벌써 4회째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내가 배운 내용, 나의 재능이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다는 점에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필수봉사활동인 의정모니터링 활동 밖에 하지 못했으나,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특히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관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가 어떻게 논의되었고 어떤 방안이 모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모니터링을 하며 각 의원의 질의 내용과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의원은 근거에 기반하여 깊이 있는 자료 분석과 명확한 논리로 정부를 견제하는 반면, 일부는 형식적이거나 정치적 질문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모니터링하였는데, 대체로 정책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논쟁을 주를 이루었다. 정책의 점검과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헐뜯기 바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과 여당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들추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는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

기에 인정할 수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정치적 논쟁이 주를 이룬 점이 안타까웠다.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국회 활동을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단순한 관찰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능동적인 참여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 연맹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싶다.

2024년 가을 학기의 봉사활동은 비록 의정모니터링 활동 밖에 하지 못했지만, 제게 많은 가르침과 성장을 가져다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넓은 시야로 사회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

### ○ 고려대학교 송 ○ 빈

우선, 제가 봉사활동에 참여한 계기에 대해 기술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 감사 모니터링과 법정 모니터링, 해외 법률을 통역 및 번역하는 활동을 하며, 입법과 사법부를 직접 살펴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 뜻깊었습니다. 특히 법정 모니터링의 경우 정량화된 질문지에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을 통해 사법부의 현황을 알아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본 소감문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었는지와 느낀점, 배움과 성장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2. 활동 내용

다음으로, 제가 활동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 감사 모니터링과 법정 모니터링, 해외 법률 통/번역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정 감사 모니터링의 경우 10월 24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위 소관 기관 전체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니터링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처음 모니터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고 이렇게 방대한 양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모니터를 경험하며, 점차 감을 잡았고, 결국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의 인천지방법원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세 번의 형사재판과 한 번의 민사재판을 관찰하였습니다.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재판을 관찰하고, 정량화된 질문지에 그 내용을 작성하며, 사법부의 인권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장 뜻깊었던 활동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해외 법률을 통역 및 번역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이번 봉사장에서 짐바브웨 헌법과 프랑스의 청소년 사법법으로 총 두 가지의 법률을 통/번역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의 법률이나 혹은 세계인권선언문 정도만 번역했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새로운 법률을 통/번역하게 되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독일의 법률도 통/번역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3. 느낀점

제가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실제 입법 및 사법부의 업무 진행 상황이 법률소비자 측,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검찰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며, 국회에 대해서도 그러한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을 하며, 이상의 인식을 스스로나마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사회학도로서, 제가 앞으로 어떤 공부와 연구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주제도 명확히 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입법과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조망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봉사를 통해 상기의 목표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점에서 저를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4. 앞으로 향후의 다짐

저는 이번 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주권 의식을 가지고 보다 신중한 접근에 기반하여 국가 정세를 감시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의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한양대학교 안 ○ 은

처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접하게 된 계기는 같은 학과 선배의 추천이었습니다. 법을 배우고 다루는 학과를 다니다 보니 관련 활동과 봉사에 관심이 있었고, 다양한 활동을 알차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법률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을학기에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필수였던 부분은 저에게는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렵고, 접한다고 해도 이해하기 난해한 국가기관들의 정책과 현안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 문제는 뉴스로 접하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도 수업 시간에 배우고 매년 10월경 뉴스를 보는 것이 전부였지 실제로 국정감사를 시청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의원의 질의를 모두 꼼꼼히 듣고 주제별로 정리하고, 의원들의 질의 태도 등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기도 하고, 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데도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의제, 현안 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특히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해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았는데, 정치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알게 되고 더불어 의원들에 대해 평가를 해 행정 감시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활동의 가장 큰 의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의 의원들이 민생보다는 당적에 따른 질의를 하는 모습과 서로를 비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권한을 받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예의를 지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국정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계에 필요한 부분이며,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그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 대해서는 전공 수업 시간과 동아리 활동 등 평소에 접할 기회가 많아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흥미가 생겨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강력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선정하고자 했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대법원 2020도 4140' 사건을 신청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인 만큼 본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꽤 중요한 판례로 다루지는 것 같았으며, 그에 따라 판결문 전문의 양도 매우 같았고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분들의 수가 많은 것은 물론, 관련 기사도 많아 리서치에 적합한 정보를 찾고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를 리서치 하면서 사건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부정기형'과 '정기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과 원칙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볼 수도 있어서 그동안 어떤 판례를 접한 것보다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저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리서치'하였는데, 처음에 활동을 신청할 때는 활동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신청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같은 활동이 있다는 것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소송대리인들의 기록과 관련 기사까지 모두 찾아 정리하는 과정이 의문스

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마치고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정말 판결문의 내용은 물론 구성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모든 활동 내용이 리서치 활동의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는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쉽지 않은 점들도 있었지만, 봉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 저에게는 참여한 모든 활동이 굉장한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들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봉사자 본인에게도, 그리고 일반인 분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많은 판결문을 리서치하지 못한 것이 아쉬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 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한 '법정 모니터링', '언론 모니터링', '번역 봉사' 등의 활동도 있는데, 다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이와 같은 활동을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기간 동안 많은 질문에도 기꺼이 답해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했습니다.

### ○ 경희대학교 김 ○ 민

이번 법률 소비자 연맹 봉사는 나에게 단순한 사회 봉사 활동 그 이상의 경험이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 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과정과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비전과 국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고, 동시에 사회 봉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았다.

이번 봉사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투자하여 무언가를 돕는 행위를 넘어, 사회의 공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이었다. 나는 국정 감사라는 제도가 왜 중요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정부가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국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했다. 이러한 활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와 감세 정책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 모습을 보며,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는 많은 사법기관의 운영 실태를 다루는 논의를 통해 정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실질적인 행정 운영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국정 감사 모니터링을 하며, 나는 이 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세수 결손, 행정 공백 등의 이슈는 단순히 뉴스에서 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 하나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역할과 책임이다. 국정 감사는 단순히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만의 일이 아니다. 이를 감시하고 기록하며 결과를 공유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한 작은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정보가 되고, 더 나은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나는 국가가 가진 중요한 역할과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이자 정책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봉사를 하며 모든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해당 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 앞으로 나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여 정책 감시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번 봉사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단순히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싶다. 민주주의는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나의 참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

### ○ 연세대학교 이 ○ 빈

이번 가을학기 봉사는 대표 활동인 국정감사에 집중하며 뿌듯하고 알찬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국정감사를 보곤 하는데,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보고서 형식에 따라 분석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과방위와 기재위와 과방위, 두 곳의 국정감사를 하며 작년 국정감사와는 또 다른 깨달음과 여러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부로 직접 실감했는데, 심란한 국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위원들을 보며 나라 운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양심있게 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감시하고 질문하며 여러 차원에서 점검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하루종일 국정감사를 듣고 있으면 몸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핵심적인 활동인지 생각하니 힘을 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영상의록 시스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률 연맹 봉사를 하기 전까지는 국정감사 영상을 저장해놓은 사이트가 있는지 몰랐으며, 있더라도 국민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 다들 봉사자가 아니더라도 국정감사 영상을 챙겨 보며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현재 법률연맹 국정감사는 대외 활동으로 주로 운영되지만,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 영상을 시청하고 혼자서, 또는 동기들과 함께 국회위원들의 질의를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본사에 가서 현장 국정감사를 했는데, 직원분들께서 NGO를 위해 세심하게 안내해주셔서 현장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인식이 우수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행에 가본 적이 없어서 낯선 장소에 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도전이었지만, 현장에 가서 국정감사를 들어보며 더욱 직접 참여하는 느낌이 들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위원들 중에서 자리를 이탈하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길어서 실망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회위원들이 열정적으로 질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의 진실되고 구체적인 답변에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국정감사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싸우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웠는데, 올해 기재위와 과방위는 비교적 매너있게 진행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토론 및 대화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많은 정보가 오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경청하는 성숙한 대화는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버마스의 철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듯이, 제대로 된 토론 문화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에 중요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위원들 간의 대화에서부터, 모든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들까지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연맹에 봉사 활동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한하여,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 토의하고 논의할 장을 마련하여 이러한 인재 양성의 첫걸음이 될 듯 합니다. 변화는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정치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은 청년층이 많다고 들었는데, “남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보다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와 헌법정신 수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NGO봉사자로서 국정감사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귀중한 기회를 주신 법률연맹 모든 관련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를 계기로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성인이 있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 ○ 부산대학교 한 ○ 성

법률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어 평소 내가 원했던 활동이라는 생각에 가입 신청서를 내려고 했는데 가을 학기 활동 접수를 마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티 메일을 받아 가을 학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 학기에만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너무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겨울 학기로 미루지 않고 가을 학기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국정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역할 중 하나가 국정 감사에 참여하여 질의를 하고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정 감사를 하는 것을 짧은 클립으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연성이 높아지고 심지어는 연쟁을 하는 경우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 감사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 기회에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한 것과 달리 국정 감사의 진행 시간에 먼저 압도 당했습니다. 8시간에 가까운 감사 시간은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버거울 만큼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참여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국정 감사에 부산광역시 시장이 답변자로 나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다 보니 더 몰입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었습니다. 화두였던 엑스포 유치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제들도 다루어졌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산광역시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다음 유치가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고 위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 감사 모니터링을 마무리하고 어떤 활동을 더 할까 하는 고민 끝에 판결문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 이전에 판결문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판결문을 리서치하는 것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1심, 2심, 3심 모두 판사에 의해 판결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뒤바뀌거나 법률의 적용이 다르거나 해석이 다르기도 한 것을 보면서 같은 법률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고 상급심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번 학기 형법 시간에 배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조건에 대한 착오’가 이해가 잘되지 않아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내용으로 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사례로 선정하고 리서치 해보았습니다. 취객이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기사가 예약된 택시라는 이유로 승차하려고 하는 고객을 거절하자 취객이 경찰을 불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취객과 경찰관 사이에 물리력 행사가 먼저 있었고 이를 취객은 위법한 공무 집행이라 오인하여 대처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취객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그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경찰의 행위가 적법했고 취객의 착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로 보니 강의 때 배운 개념이 더 잘 이해되고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활동은 많이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고,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활동 중 국정 감사 모니터링과 판

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부분들과 관련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방대하고 형식도 조금은 복잡해 활동을 처음 진행할 때는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대학생 때 먼저 경험해본다고 생각하니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값진 경험이었으며 이러한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 서강대학교 방 ○ 솔

어느덧 2024 봄학기부터 3학기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는 다른 학기와는 다르게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다든 점에서 더욱 나에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활동은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각국 헌법 번역이라는 두 가지 주요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내가 느꼈던 점과 배운 점을 위주로 작성해 나갈 것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였다. 국정감사는 국가 정책과 그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각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산업 및 통상 정책이 중소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느꼈고, 이에 따라 정책 입안 과정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피감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평소에 이처럼 다양한 기관들에 대하여 직접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았으므로 더욱 인상 깊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내용이 국정감사 주제로 떠올라 흥미로웠다. 이와 관련하여, 대출 미실행 문제, 업무약정서에 대한 확인 부실한 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감안하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최신 이슈를 파악하며 위원장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 및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단순히 정치적 논의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

다음으로, 짐바브웨와 잠비아 헌법의 일부를 영한 번역하는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짐바브웨 헌법의 57-62페이지와 잠비아 헌법의 6-16페이지를 번역하며 국제 헌법 문서의 구조와 문체를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헌법의 조항들이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고 법률 문서가 단순한 규범의 집합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담은 산물임을 깨달았다. 번역 과정은 단순히 문장을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용어와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법률 번역에서 요구되는 세심함과 전문성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나의 가을학기 봉사활동 경험들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향후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느낀다. 올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약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며 쌓은 여러 경험을 통하여 이를 향후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법률 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에서 다양한 법률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 ○ 경기대학교 남 ○ 경

법률연맹의 법정모니터링 봉사와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법학과 학생으로서 이 두 가지 활동은 법의 실체를 이해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해보기는 어렵고 생소하여 하는 방법조차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봉사라 좋았습니다.

법정모니터링 봉사는 저에게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이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정의와 공정함이 실현되는 장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형사 사건, 민사 사건 등 각기 다른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고, 각 사건마다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한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사는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주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인생이 달린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 또는 사설 변호인 선임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생각하는 판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정모니터링을 하는 동안 판사의 판결을 듣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언제 어떤 사건을 진행하는지 물과 방청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개정중인 법정이 어디인지 나와있지 않아 법정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며 “오늘의 사건안내”를 보면서 혼자 파악해야 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한번은 비공개재판이라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재판은 안내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사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중립적이어야 하며,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며 이러한 법정의 절차와 규칙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면서, 법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나의 역할을 고민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의 중요한 과정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활동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각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특정 정책이 시행된 이후의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묻고, 또 다른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에서의 경험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정책이 시행된 이후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을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국정감사에서는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서로의 당의 지도자를 깎아내리기 바빠 다른 점들에 대한 지적을 잇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본질을 바로잡고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학이라는 분야의 중요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경험은 법의 적용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었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법과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법률연맹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뜻깊은 활동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이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의 미래에 길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 전북대학교 양 ○ 비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정책 집행과 행정의 실태를 점검하고, 법률 및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는 정부의 법률 및 행정 집행의 현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적 문제들은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적용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다뤄졌고, 법률의 해석과 집행이 법적 안정성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 개정에 있어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느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에 관한 문제들이 다뤄졌는데, 이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실감했다. 정부의 행정조직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행정의 비효율성이나 공정성 문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법정 모니터링은 국정감사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법정에서 진행되는 실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판결이 실제로 사회적 정의와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은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법정에서의 판결 과정은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인간적인 측면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 이번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서 판사들이 법적 해석을 어떻게 내리고, 그 해석이 사회적 맥락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국정감사는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법정 모니터링은 법원이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깨닫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법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적·행정적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라는 개념을 넘어, 법률과 정책의 실제적인 적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정의와 변화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 활동들을 통해 법률과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 경희대학교 강 ○ 은

더 발전된 사회를 위한 국민의 관심

이번 법률 소비자 연맹의 가을 학기 필수 봉사활동의 내용은 국정 감사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두 번째 국정 감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 모니터링에는 당일 모니터링도 신청하여 실시간으로 국정

감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 더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었고 제가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부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모니터링에서는 경찰청과 도로 교통공단을 감사하였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지는 내용은 현재 정치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질문이 있었고 문다혜 씨의 검찰 조사에 대한 여당,야당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북한 오물 풍선에 의한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와 방지에 대해 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경찰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치안과 국민 안전 문제에 관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범죄도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논의된 것은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텔레그램으로 인한 수사 난항에 대한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만큼 경찰 인력 부족과 장기적인 수사 지속성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많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었는데 수사가 힘들고 처벌도 특정화되기 힘들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 감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이터 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구제책은 이전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던 내용인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힘써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법제사법위원회 모니터링에서는 대검찰청을 감사하였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 역시 정치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청탁 문제와 명태균씨 공판 개입 내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많았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으로 대한다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어릴 때부터 민주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두 번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한번 현 사회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지만 이런 과정 역시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 연세대학교 강 ○ 연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크게 2가지로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과 번역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둘 다 지금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유형의 봉사활동이어서 정말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국회의원마다 준비해오는 게 천차만별이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나 질문이나 지적의 날카로움의 정도가 정말 차이나는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질문에 비해 답변은 성의가 없고 우회적으로만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발언 시간이 아닌 때에도 옆에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우선 이런 국정감사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번뿐인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많은 준비를 해 갈텐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질문을 하다보면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간 바를 전부 전달하기가 힘들 수 있고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준비해간 바를 조리하고 차분하게 상대방에게, 또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국회의원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아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넘어가거나 편향된 생각을 갖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각자 당에 속해있지만 이런 국정감사를 진행할 경우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효과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반대 당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어떤 국회의원이 참된 국회의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국민들이 이런 국정감사에도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국회의원들이 더욱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프랑스 청소년 사법법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번역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청소년 사법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어로 기재된 법을 볼 일은 없었는데 직접 번역해보면서 청소년들에 대해 어떤 프랑수어 단어를 표현을 했는지, 어떻게 강조를 했는지 그 뉘앙스를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불어불문학과 학생으로서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프랑스 문화, 프랑수어인들의 마인드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번역을 진행할 수 있었고 매끄럽게 한국어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작업은 단순히 사전을 활용해 글자 대 글자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의 뉘앙스, 나라에 대한 배경지식 등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 성균관대학교 강 ○ 연

2024년도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한 봉사활동은 저에게 학문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동안 대검찰청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1부와 대법원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1부를 작성하는 데 참여했으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판결문 리서치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체감할 수 있었고, 법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검찰청과 대법원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조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핵심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의 기능이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국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 문제와 연결된 법적 사고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판결문 리서치는 법률적 논리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개인 간 분쟁 해결에서 법의 역할과 공정성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범죄 행위의 정의와 처벌 기준, 그리고 형평성과 정의의 균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 과정은 법률 용어와 논리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었으며,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법이 실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했습니다. 법률이 사회적 안정과 정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동시에, 그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제 앞으로 법률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한 이 기회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학문적, 실무적 성장을 이끌어준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 ○ 이화여자대학교 고 ○ 영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된 계기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법·사법·정치·언론에 대한 전문성 있는 봉사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학교를 다니면서 재택으로 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와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판결문 리서치 두 가지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를 끝까지 보면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해보게 되었는데 국민으로서 어떻게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이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다. 평소에 뉴스나 신문으로만 짧게 보았던 내용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판례를 처음 분석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도 많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읽어보고 어려운 법적 용어의 의미도 찾아보며 점차 판례를 이해하게 되었고, 세 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판결문의 쟁점과 사실관계, 판단요지, 전문, 기사를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점차 판결문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고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좋았다.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활동들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특히 법원 방청, 언론모니터링 활동도 꼭 경험해보면서 재판은 공정하게 시행되는지, 언론은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파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학기에 진행될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 이번에는 참가하지 못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해 법·정치·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확장해 나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 ○ 경북대학교 구 ○ 서

저는 이번 가을학기 동안 국정감사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총 두 가지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 국정감사모니터링의 경우 법사위와 행안위의 10월 7일 첫 국정감사 일정을 모니터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국정감사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었으나, '어려울 것이다.', '너무 길다.'는 이유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본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 각 의원(위원)들이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어떤 태도로 행사하는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다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견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 판결문리서치는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소(2020다267491)'와 '최저임금미달액청구의소(2023다223744)' 총 2개의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전부터 노동법 분야에 관심이 많아 노무사 1차 응시를 하는 등 관련 노력을 꽤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판결문을 통해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수한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단 판결과 법리적용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태도에 있어서도 판결문은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 제공 신청 과정이 조금 지연되어 더 많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만, 이번 학기 활동 중 가장 흥미롭고 재밌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확인하던 것이 얼마 전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하고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하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인지라 역시나 어설플 점이 많았지만, 담당자분들께서 꼼꼼한 안내문 제공과 더불어 훌륭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어 활동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해도 충분히 공부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우고 느낀 점이 정말 많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나, 첫 활동인지라 미숙한 부분이 많아 후회되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2~3개월이라는 기간이 여유롭다고 생각했었는데, 학기와 병행하며 국정감사 스케줄과 법정 개정 일정을 맞추다 보니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개시 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각종 신청 및 진행 일정에 맞추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었다면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을학기 활동에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겨울학기 활동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동국대학교 권 ○ 정

사실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는 '봉사 시간 채워야 아니까..' 라는 어렴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전공과 연관되어 있고 법률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니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내가 가진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쉽게 해 나가려는 안일한 마음을 숨겨두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에게겐 기관 OT부터 난관이었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메뉴얼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다. 부끄럽게도,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너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신청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OT 자료를 천천히 정독하며 조금은 후회를 했던 기억이 나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어영부영 10월 중순까지 별 생각 없이 지냈던 것 같다. '시간 나면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다. 부랴부랴 국정감사 일정을 찾아보고, 학교 중간고사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핑계다.

먼저, 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대충 계산해보다가, 이거 도저히 대충 가볍게 넘어갈 수 없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시간만 거의 10시간 즈음 되었고,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생각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그렇게 차근차근 국회의원들의 말을 들으며 흐름을 찾아 보니, 생각보다 재밌었다. 평소 과학기술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말하고 있는 주제들을 정리하다 보니, 그것들이 나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중중 정치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 외의 흥미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보게 될 때 즈음, 나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았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가기관 등 주요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니, 책오만 읽을 때는 도저히 와닿지 않던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활동 의의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

다. 국민, 즉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국가 기관 등 주요 기관이 그것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바로 내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나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니, 마냥 길게만 생각되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게 느껴졌다.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흥미가 있었고, 정치적 논쟁을 지켜보는 것 또한 그다지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재밌게,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택 봉사활동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선택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활동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기말고사가 끝나고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진행하였지만, 절대 보여주지않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형사 사건에는 그다지 큰 흥미가 없기도 하고,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내가 관심이 있는 민사 사건 판결에 대한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다. 그 중 이번 학기에 익히 배웠기에 가장 자신 있고, 일반 국민이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은 분야인 보험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판례에 대한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다.

구상금과 손해배상채권 등에 관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는데, 어렵지만 우리 국민이 익히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작성하면서 법관과 변호사들의 이력이나 이전 소송 현황을 살펴보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하여 특정 범주법인이거나 특정 변호사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호사의 승소, 패소 이력을 한 눈에 보이게 작성해보니, 이런 정보들이 정말 중요한데, 전공자인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 돋았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감시는 사실 일상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사법기관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그렇기에 내가 진행한 봉사활동이 가지는 의의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은 용어적 측면이나 판결에 사용되는 법리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쉬운 단어로 바꾸고, 쟁점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것 또한 처음에 매뉴얼이 길어서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이고, 근거 모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니, 생각보다 금방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나의 전공 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큰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활동이 가지는 의의를 어느정도 마음속으로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하다. 앞으로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나, 사회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의의를 마음속에서 계속 굴리며 살아갈 것이다.

### ○ 홍익대학교 권 ○ 민

저는 23년 겨울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였기에 시간상시도해보지 못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대한 궁금증만 남긴 채 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가을학기는 시간이 되어 두번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필수 봉사활동을 다 마치면 전에 해보지 못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는데 이는 제 기준에서 가장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평소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각 위원회에서는 국민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활동이 국회 위치에 관심을 갖고 피감기관 및 상임위원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국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였는데 각각 경찰청, 대전고법/고검을 감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장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었기에 직접 참석하여 모니터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국정감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진행했던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꽤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로 인한 교통통제 사실과 감사대상이 경찰청이라는 사실이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정감사보다 활발하고 격렬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직접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느낀 점은 상임위원회의 지적과 조언을 통해 많은 기관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실행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그런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상대 당을 무시하는 발언,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분출하는 행위를 다수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은 저와 같은 모니터위원들이 발견하고 지적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기에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자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의 기회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시간 중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의 역할을 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모두 마치고는 계획한대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하기에 앞서 판결문의 선택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사/형사 사건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도, 그걸 선택하면 또 그 많은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을 선택해야 좋을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언론의 자유vs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중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전부터 어떤 권리가 우위에 있을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인정되는 기준과 언론의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하는 기준,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기준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 특정 사안에 필요한 법률이 무엇이고 그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판결문 리서치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 ○ 계명대학교 금 ○ 연

2024년 봄학기 와 여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며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사법 감시의 기능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또 다른 배움을 얻기 위해 이번 가을학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국정 전반을 감사하며 입법과 예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은 각 기관의 주요 이슈와 사회 문제들을 파악하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등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처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 행사 문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습니다. 법제처의 성과 지적, 업무 현황 보고서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법령 제공 활동에 대한 피드백 등 피감기관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질의도 있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의 실적에 대한 지적과 폐지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기관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구명 로비 의혹, 삼부토건 추가 조작 의혹 등 특정 사건에 더 집중이 되었고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 수사하듯한 태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제처와 공수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

해 주요 정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유익했지만 한편으로는 국정감사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문제, 대왕 고래 프로젝트, APEC 관련 예산 문제 및 특별법 등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질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북도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소방 인력, 의대 증원과 같은 정책 질의와 오송 참사 대응 미흡, 성과급 문제, 피감기관장과 관련된 논란들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비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국정감사의 중요한 역할임이 분명하지만 일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를 넘는 비난, 수사하듯 진행된 감사, 정당 간의 싸움으로 변질된 점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들을 발전시킬만한 생산적인 내용들도 부족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경험을 통해 모니터링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매년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국정감사를 보고 의원별 질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워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나 사회 이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음에도 그동안 국정감사를 주로 sns에 올라오는 뉴스 등으로만 접하고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뜻깊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활동은 번역 봉사였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잠비아 헌법을 번역하였습니다. 헌법 번역 시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함께했는데 이를 통해 잠비아의 배경과 정부 형태 등을 배울 수 있었고 번역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활동을 통해 잠비아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구성, 법관의 임명 및 해임 절차, 위임 통치 체계를 자세히 알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헌법을 해석하게 되어 더 흥미로웠고 해당 국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집중하여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법과 정치 분야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 숙명여자대학교 김 ○ 현

단순한 봉사가 아닌, 배움의 연속.

대학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에 앞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법학을 복수전공하며 법학 지식을 쌓을 수 있었지만, 실제 배운 내용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학교 선배의 추천을 받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봉사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가을 학기 봉사자로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과 법률 번역 봉사에 참여했다.

우선,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소감을 말해보고자 한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가을학기 필수 활동이었고, 약 한 달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매우 간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항상 언론에 이슈화되는 국정감사 내용만 짧게 접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22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며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다. 장시간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부서와 관련된 수많은 안건들이 논의되었고, 하나 하나의 질의응답마다 국정감사위원들은 철저한 자료조사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이끌어냈다. 동시에 국정감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힐난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피감기관장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 분노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며 국회의 역할을 더 실재적이고 현장감 있게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

두 번째로 한 활동은 법률 번역 봉사이다. 이 활동에서는 전공인 일본어를 살려 "일본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을 번역했다. 처음에는 일본어간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너무 힘들었다. 일본의 법률 용어는 실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과는 차원이 달랐고, 한국에서는 "1항", "1호"와 같이 달리 표현하는 방식인 반면, 그저 한자로 1, 2를 적는 것 때문에 분류하는데 너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던 점은 한국의 법이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만큼 사용하는 한자어가 같아서 한자 그대로 번역한 말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었다. 물론 발음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들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흥미로웠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첫 봉사활동은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책으로만 공부를 했던 나 자신이 직접 부딪혀보는 경험을 통해 또 다른 배움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기 중에 공부와 함께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분야의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다. 끝으로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측에도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 ○ 서강대학교 김 ○ 연

2024년 가을학기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대법원 판결문 리서치는 제게 법학도로서 한층 더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순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것 그 이상으로 이번 활동들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실제 법적·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국회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인상깊었는데, 이를 통해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정 사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피감기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들은 우리 사회의 법적·제도적 틀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대법원 2017도11856 판결문 분석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판결 결과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의 근거가 된 법리와 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과 이를 둘러싼 재산권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관습과 법적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저는 법조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논쟁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능력은, 단순히 법률가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법률을 통한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할 것입니다.

이번 활동은 제가 법률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해 주었기에 소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배움들을 발판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 숙명여자대학교 김 ○ 연

이전까지 저는 이론으로만 법률을 배워왔을 뿐 실제로 참여한 적은 드물었고 법과 관련한 실질적인 경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법이 실제로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을 조금 더 가까이 지켜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고, 이번 2024년도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고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과 헌법 번역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가을학기 필수봉사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었기에 이번엔 이루어진 봉사는 대부분 국정감사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

고 자칫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이슈가 국정감사 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년도에는 헌정권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이 국정감사 내에 질의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던 내용보다 더 자세하고 언론의 시선에 치우쳐지지 않은 본연의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사회를 보는 시선도 발전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참여했던 기관이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로 피감기관이 각각 대검찰청,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었습니다. '법'이라는 주제에 있어 가장 관련이 깊은 두 기관이 국회의 질의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국회의원으로 각 기관에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어 국민의 대표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는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고 꼭 봉사시간을 얻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내년 국정감사 중 몇가지는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한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했던 헌법 번역 봉사활동의 경우 '짐바브웨'라는 생소한 나라의 헌법 번역을 맡게 되어 그 나라의 특성부터 살펴보고 헌법을 번역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배워왔기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신청하였으나 그 나라의 특성을 담은 언어로 번역하고, 법률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다보니 여러 뜻 중에서도 맞는 단어를 찾느라 애를 썼던 기억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관련해서 단순히 우리나라의 법률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저에게 다른 헌법을 번역하는 것 자체가 법과 연관되어 유의미한 활동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법학부라는 타이틀에 무색하게 제대로 법과 관련된 사회의 이슈를 접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조차 정확히 본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하며 과정은 물론 국정감사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법률적인 측면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법 번역봉사에서도 전 세계에 다양한 법률 체계가 있고 단 한문구라도 지역의 특색, 국가의 특색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한국 법률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교 과목 중 국제법이나 국제사법을 수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모니터링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 관심이 있던 다른 분야의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일정들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을 전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겨울학기나 내년 봄학기 봉사활동에 재참가하여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은 물론, 국정감사와 같이 특정 시기에만 참여할 수 있는 필수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큼니다. 앞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통해 제 개인 역량도 더욱 성장시켜보고 싶습니다.

### ○ 고려대학교 김 ○ 재

이번 가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한 봉사활동은 국정감사모니터링이었습니다. 특히나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국방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바 있습니다. 평소 뉴스를 통해서 짧게 언론을 통해 공유되는 짧은 주요 내용만을 접하다가, 실제 현장에서 10시간 넘게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참관한 것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건물을 구경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청사 내에 들어가 TV로만 접하던 국회의원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특히나 일부 고성이나 막말이 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긴 시간 동안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 기관을 감시하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감명받은 면도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평소에 관심있던 분야였기에 흥미진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있는 것보다는 몰입하기가 어려웠지만, 제가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좋

았습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더욱 흥미가 생겨서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단순 봉사활동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활동을 감시하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명심하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OT를 제외하고 가을학기에 크게는 2회밖에 참여하지 못했고, 특히나 국정감사모니터링 외에 법정 모니터링이나 언론 등 다른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에 겨울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신청하여서 해보지 못한 다른 분야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겨울학기 필수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활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활동 모두 제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기 중이 아니기에 가을학기보다 더 자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 좋은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고려대학교 김 ○ 정

지난 세 차례의 봉사활동에 이어, 이번 2024년도 가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판결문 리서치 1건, 국정감사 모니터링 2건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총 35시간 봉사하였습니다.

판례분석은 대법원사이트에서 (중요)나 (이슈) 표시가 있는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학부에서 형법을 수강했는데, 해당 강의에서 배운 법리를 활용하여 형사재판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활동했던 법률학회에서는 3심의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판례분석을 진행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의 양식에 따라 1심, 2심, 3심 각각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그리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 재판에서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세 차례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나,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본 적은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의 국정감사 과정을 살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대표자로서 그리고 지역의 대표자로서, 우리나라의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국정감사 진행 과정을 세세히 살펴보는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 기존에 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과 공부와 기타 활동으로 바빴지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어느 공간에서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와 의정모니터링에 더하여, 해외 법제를 번역하는 활동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 성균관대학교 김 ○ 진

이번 가을,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선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연맹 가을학기 봉사에 투자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제가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며, 그 가치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는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가 국정감사라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점검되고 개선되는지를 직접 관찰하며, 국가정책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주는 날카로운 질문과 면밀한 자료 검토 과정을 보며 그들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의원들은 단순히 정책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이들의 노

력이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끼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 방송사의 운영 실태와 이슈들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며, 공영방송이 국민의 삶과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료 정리와 분석 과정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정책과 실무의 연결고리를 경험하며 제 개인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미디어의 가치를 되새기고, 정책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나가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문학을 전공하며 국제 이슈와 국가 간 위상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저에게, 이번 국토교통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글로벌 항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 피감자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신속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대처하며 제시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 운영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관리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제적 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공항공사 취직이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은 국제 이슈와 글로벌 경쟁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공공기관이 국제적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기여하는지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의 관문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지를 보며, 글로벌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조직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의 전공 지식과 관심사를 결합하여 더 넓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일본 형사보상법 번역 봉사는 지난 봄 일본법 번역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깊이 있는 법률 이해와 언어 감각을 익힐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다루며 일본 법 체계의 세부적인 특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법의 보편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또한, 정확한 번역을 위해 집중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지만, 완성 후에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번역을 통해 국제적 이해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 ○ 덕성여자대학교 김 ○ 희

**“사유하지 않는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는 없다.”**

고등학생 시절, 신부님과 함께한 철학 수업에서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을 배웠다. 아렌트는 나치 정권 아래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던 아이히만의 발언을 바탕으로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다. 악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 지휘 혐의에 대해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 답했다. 대규모 학살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적극적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 이에 한나 아렌트는 사유하지 않는 것, 즉 무사유(無思惟)에서 악이 비롯된다고 보았다. 흔히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유하지 않음으로 인한 무지함은 죄가 될 수 있다.

전체주의 시대를 지나 지금 현대 사회의 악은 어떤 모습인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계엄이 선포된 후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의 통행을 막았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고, 보좌관은 소화기를 뿌리며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사유하는 시인에 의해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권력 불법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낀 순간이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및 관련 가담자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분노는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향했다. 올 수 있었는데 오지 않은 것,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였다. 시민의 안위가 아닌, 자신의 잇속만을 걱정하던 정치인들의 행위는 분명 악이었다. 틀림없이 평범한 악이었다.

이번 가을 봉사 필수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다. 뉴스에서 짧게 보여주는 주요 장면과 인터넷 기사 제목으로만 접했던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한 색다른 경험이었다. 물론 위원장의 감사 진행 능력을 평가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요약하며 듣는 것도 처음이었다. 다양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리하며, 그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뉴스를 봐 온 것을 반성했다. 내가 모니터로 참여한 정무위원회 국감의 중심 이슈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그 사건을 수사하던 부패방지국장의 사망 경위를 캐물으며 권익위의 사건 수사 종결처리 원인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질세라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따졌다. 국감장에는 고성이가 오갔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위원장의 노력에도 파행을 피할 수 없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전술한 말의 뜻을 다시 한 번 곱씹는다. 모니터 보고서 작성 당시 나는 ‘잘 한 위원’에 여당 의원 중 하나를 추천했다. 여야의 정치적 견해 대립으로 고성이가 오가던 국감장 속 비교적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감사에 충실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반대로 ‘못 한 위원’에 야당 의원 중 한 명을 추천했다. 지나친 고성으로 파행을 유발하여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다시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추천 위원의 이름을 서로 바꾸었을 것이다. 주관이 없는, 사유하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계엄 해제 이후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출석을 거부했다. 내가 칭찬했던 의원의 중립적 태도는 민감한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불출석 행위로 나타났다. 반면, 내가 비판했던 의원의 고성방가는 촛불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목소리로 나아갔다. 사유하지 않는 자는 늘 고분고분하다. 생각 없이 표면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는 자는 조용할 수밖에 없다. 중립을 표방하는 듯한 비겁한 모습은 고요 속 악을 낳았다. 주권 시민으로서 사유하고 촛불을 든 자들은 떠들썩하게 악을 몰아낸다. 악이 평범하다면, 선은 비범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 이전에 사유하는 시민이 있다. 결국, 법은 사유하는 시민들에 의해 존립한다.

### ○ 경북대학교 김 ○ 경

제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을 신청한 것은 같이 로스쿨을 준비하던 친구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졸업생으로서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 활동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활동이라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자 법을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가을학기 필수 봉사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법을 생산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가을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싸울까?”, “적절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나, 딴 생각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대로 현장을 살펴보니 국정감사의 메커니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가진 막강한 권한으로서,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정에 대한 비판 및 감시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의미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잘 감사하는지, 나아가 피감기관들이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지 지켜보는 모니터링 활동은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절한 질의로 피감기관의 개선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감사 위원도 있었지만, 피감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국정감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을 하는 감사위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니터위원과 국

민이 없다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뿐더러 그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행하는 국회의원도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도 법에 따라 주로 누군가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인데, 특히 피감기관은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감사받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들도 생산적인 질의를 더 많이 하고 감사장 분위기를 흐리는 언행을 반드시 삼가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모니터링했던 국정감사는 대구고법, 대구고검,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였습니다. 이 피감기관들은 모두 제가 사는 동네와 가까웠습니다. 동네 주민으로서 해당 피감기관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를 참관할 수 있어서 신기했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법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 지역의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수 봉사 활동인 국정감사 외에도, 저는 독어독문학 전공을 살려 번역 봉사 활동도 하였습니다. 독일 문학이나 독일 언론 텍스트는 접해보았어도, 독일 법률 텍스트를 제대로 접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대학 시절 법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법학 용어에는 익숙했기 때문에, 사전에서 적절한 해석을 찾는 과정이 덜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독일에서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번역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법의 제1조-제1항-제1호 체계와 독일 법의 §-Absatz-Satz... 체계가 유사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 활동을 통해 적은 양이지만 번역가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현지 상황에 맞게 번역하는 일, 그것도 전문용어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번역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법학 연구자분들과 번역가분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다른 나라 법과 판례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기본 독일어 실력을 더욱 갈고닦아 미래에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 ○ 고려대학교 김 ○ 윤

저는 이번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가 국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며, 주요 정책과 그 성과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모니터링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발전, 인터넷망 정책 등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도 박민규 의원이 지적한 네이버의 약관 문제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블로그와 댓글 등 사용자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윤리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디지털 시대에서 기업의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의원이 지적한 FC 온라인의 승부 예측 이벤트 문제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해당 이벤트가 스포츠 토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온라인 도박에 해당하며, 특히 전 연령대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지적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는 특히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정부와 기업이 더욱 책임감 있는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이후에 얻을 수 있던 점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각 의원과 관계자들이 논의한 자료를 취합하고 비교하며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점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며 더욱 깊이있는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감했습니다. 방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이해하고 정리하며,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 분담과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국정감사가 단순한 정책 평가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시민으로서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넘어, 제가 공공정책과 사회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 ○ 동국대학교 김 ○ 민

2024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사위원별 국정감사 질의 시간 및 질의내용을 정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를 파악했으며, 잘한 의원과 못한 의원을 추천하고, 상임위원장과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평가하였습니다.

기사로 고성이 오갔다는식으로 이슈가 되거나 개괄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 전과정을 보면서 관심받지 못했지만 중요했던 내용들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생각보다 오래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국정운영의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한 의원과 못한 의원을 추천하면서 각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파악해볼 수 있었 좋았습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국회의원별 발언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했는데,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익숙지 않아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지적을 받지 않았지만 좀 더 나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두 번째 보고서부터 각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빠짐없이 적되 읽기 편하게끔 정렬하여 작성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모니터링보고서를 빠르게 작성하여 일찍 제출하였고, 꼼꼼히 작성하여 보통 보고서작성인정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시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려서 작성해야할 국회의원이 몇명이 남았는지 계속 확인하며 집중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5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급하게 처리한다고 다른페이지를 빼놓고 제출했습니다. 내용과 양식, 그 외 모든 것을 지켰지만 제출에서 실수했다는 점에서 좀 더 꼼꼼함을 행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기관에서 국정감사 모니터링하면서, 이슈가 되는 기사로 국정감사 내용을 개괄적으로만 보아왔던 이전과 달리 이번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알 수 있었으며 몰랐던 혹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의 시간이 매우 길어 보고서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도 해보고 싶었지만 국정감사 장소가 멀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처음에는 학점을 얻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뜻 깊고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앞으로 학점봉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법률소비자연맹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는 이번에도 하지 못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이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생겼습니다.

### ○ 서강대학교 김 ○ 정

봉사활동을 통해 발견한 성장과 배움의 기회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지원했을 때, 저는 법률 관련 봉사시간을 쌓아 로스쿨 입시에 활용하겠다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그 과정이 생각보다 도전적이고 세계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국정감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맡았을 때, 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몇 차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수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법학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치 분야에 대해선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지조차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제 관심 분야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하며,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맡으며, 배달 앱 수수료 인상 문제, 티몬 사태 등 제가 미처 몰랐던 현안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제 관심사인 공정거래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공정거래법의 적용 사례와 법적, 경제적 관점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게 단순한 봉사시간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의 꼼꼼함과 집중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이 제 진로와 직결되는 현실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공부하고 경쟁력을 축적하는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려는 저에게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시간과 실적을 쌓는 것을 넘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하게 된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 중앙대학교 김 ○ 서

법률소비자연맹의 가을학기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봄학기 와 여름학기 봉사에 이어 가을학기 또한 알차고 흥미로운 필수활동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필수활동 및 선택활동의 구체적인 봉사내용과 소감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필수활동으로 진행된 국정감사모니터링은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를 모니터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유튜브 등을 통해 짚막하게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의 국정감사를 시청한 적은 처음이라 약 9시간 가량 이어지는 국정감사에 조금은 힘든 점도 있었지만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정감사가 세금 등과 같은 경제상황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어서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했지만 대학에서 수업으로 세법을 들은 경험이 있어 이해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국정감사에서는 역시 '세수결손과 그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각 행정청의 재정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외에도 기관에서 이루어진 인사의 투명성문제,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활용현황과 문제,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와 공정성, 현재 국내외 경제전망과 이에 따른 경제정책방향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또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몇몇 국회의원들은 ppt 자료를 보이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정감사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경우,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대해 이루어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영풍석포제련소의 산업안전문제와 경주의 APEC 개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니, 답변은 듣지도 않고 질문만하는 의원도 존재했습니다. 피감기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정확하고 거짓없는 답변을 얻어 내려는 것은 좋지만, 다량의 질문만을 폭격하며 답변이 이루어질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좋은 국정감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각 행정기관별로 어떤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진행현황이 어떠한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국정감사를 시청하고 싶다는 생각

이 들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는 봉사활동 초반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활동인데,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하여 퀄리티 높은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겨울학기봉사에도 판결문리서치는 반드시 이어가고 싶습니다.

겨울학기봉사에, 방학동안 진행되는 많은 시간을 봉사에 할애하고 싶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일반 김 ○ 서

지난 봄학과와 여름학기에 이어, 어느덧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세 번째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항상 다양한 경험을 쌓아주며, 법률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이전 학기와 다른 점은 국정감사 활동이었는데,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법과 정치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 대한 소감입니다. 가을학기 필수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현장모니터링 또는 온라인 모니터링의 방법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확인해서 원하는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시간을 내어 국정감사 현장에서 생생하게 모니터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주요 이슈와 질의내용을 정리하고, 질의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저는 총 2번의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공수처 국정감사였고, 두 번째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였습니다. 처음 모니터링을 할 때는 너무 어렵고 오래 걸려서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국정감사 시간도 굉장히 길고, 부끄럽지만 평소에 뉴스를 챙겨보거나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의 다양하고 생소한 질의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주제는 기사를 검색하고, 생소한 법령도 공부해가며 잘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모니터링 이후 요즘에는 뉴스를 종종 챙겨보게 되었는데, 내가 국정감사를 통해 배운 내용들이 귀에 들리는 것을 보고 이번 활동이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체감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과 같이 사회와 국정이 혼란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고 반성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활동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인 판결문 리서치에 대한 소감입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원하는 판결문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분석·정리하고 해당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평소 형사사건에 관심이 많아 형사사건 판결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방조 사건이었는데, 대마 매매를 위해 대마 판매자가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피고인에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판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 대항법과 공범 인정 기준,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등 다양한 형법 개념들을 복습하며, 대법원에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학기였습니다. 국정감사도 다양한 피감기관을 더 많이 모니터링하고 싶었고, 판결문 리서치도 하고 싶은 판결문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상기하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소감문을 작성할 때면 한 학기 동안 배운 것과 느낀 것이 많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다음 겨울학기도 신청하고 꾸준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해나갈수록 성장하고 있으며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꿈을 구체화해가며 이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고려대학교 김 ○ 호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회의 주요 역할과 국정 운영의 현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검증부터 사회적 현안까지 다양한 내용이 조망되었고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해당 국정감사를 현장에 가서,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국정감사의 중요성과 한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GP 부실검증"과 "북한의 파병" 등 주요 이슈를 통해 군사적 투명성과 안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GP 철거 과정의 관리 부실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드러냈으며, 북한의 국제적 군사 활동 확대와 관련한 대응 전략 필요성도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같은 내부 문제부터 한국과 미국의 작전 계획 수정 등 국제적 안보 전략까지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복귀를 촉구하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신북풍몰이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여 결국 파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금리인하", "재정정책", "일시차입금" 등 경제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최근 이창용 총재의 발언과 관련하여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관한 질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단행한 금리 인하 조치는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와 함께,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적절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질의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학령 인구의 지역적 편차를 반영한 교육 정책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해당 국정감사는 현장모니터링 위원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가서 모니터링하였는데, 직접 가서 본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심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영양가 없는 질의를 하고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반복하는 의원이 있기도 하였고, 7시간 반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6시간 넘게 자리를 비운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는 알 수 없었던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알게 되어 실망스러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음주운전"과 "마약"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사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언급되었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처벌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음주운전 방지 기술의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마약 사범 검거와 대마 재배와 같은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관세청의 역할과 관련된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마약 문제는 단순한 법 집행의 차원을 넘어 예방, 단속, 재활 프로그램까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안전과 관련된 핵심 사회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기관의 역할을 다시금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문다혜 씨, 김건희 여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들을 활용하며 여야 의원들이 경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나친 정쟁을 보이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금체불"과 "부정수급자"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다뤄지며 노동 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대우위니아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보고되며,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과 질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부정수급 방지책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정당한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환경노동

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태도를 보고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놓치기 쉬운 사안을 철저히 준비해 중요한 질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의원들이 있기도 한 반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질문을 이어가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태도로 피감기관장을 압박하며 국정감사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태도가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피감기관장의 태도 역시 국정감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는 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부 피감기관장의 경우,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질문의 요점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축소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들이 구체적인 답변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추가 질의를 이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정감사의 본질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인해 그 본질이 흐려질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질의, 불필요한 정쟁,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모습은 국정감사의 생산성을 저하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국정감사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검증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그 중요성과 책임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국회의 발전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국정감사가 더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 ○ 동국대학교 김 ○ 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2024 가을학기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학생 봉사자로 활동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김준수입니다. 한 학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봉사활동도 차차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어 저의 첫 사회봉사 교과목을 마무리하는 소감문을 작성해보고자 이렇게 서두를 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되며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학년인 제가 현재 로스쿨 입시 전에 쌓을 수 있는 정성적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던 중, 봉사활동과 동시에 법과 관련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해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정성적 요소를 위해 신청했지만,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정독하고 국정감사 모니터링 등의 봉사활동들에 실제로 참여해 보면서 단순한 봉사활동 그 이상의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학기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필수 활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청한 활동 내용과는 별개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모니터링할 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제가 사회현상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정치적인 문제에 많이 관심 갖지 않던 사람이어서 국제적 정세는 고사하고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고,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지 않았습다. 하지만 이번에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다양한 안건들과 회의에 참가하며 그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니,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저의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의 배후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저의 주관과는 별개로 상 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학기에는 제가 전공 과목을 많이 수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국감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원래 신청했었던 법정 모니터링,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등 법과 관련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었지만 상황이 허락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 겨울학기 또는 2025년 1학기에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사회봉사자를 다시 지원해서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봉사활동에 저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경험함으로써 후에 법조인이 되는 길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동안 정말 의미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음 학기에도 꼭 봉사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고려대학교 김 ○ 호

이번 가을학기에 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유는,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저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학기 봉사학기를 마치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음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진행한 봉사활동은 크게 판결문리서치와 국정감사모니터링이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모니터링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국회에서 흔히 정쟁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두 위원회를 모니터링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쟁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80% 이상의 질문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질문이었고, 실제 법실무 등에 대한 질의는 많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국정감사라는 연간의 국가부처 활동을 감독하는 자리에서만은 정쟁을 내려놓고 실제 국민의 삶과 맞닿은 부분에 대한 질의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동혁 의원의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질문은 정쟁 사이에서 본 한 줄기 빛과 같은 질문이자, 그 내용 자체도 훌륭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리서치활동으로 총 6개의 사안에 대한 18개의 판결문을 읽고 쟁점을 정리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서 형사판례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법원2018도13877 판결(강제추행에서 폭행, 협박의 의미) 판결은 가장 인상깊은 판결이었습니다. 이전 재판의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서 보니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보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과정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으로 그 기준을 바꾸어 취업규칙을 회사가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2017다35588 판결도 인상깊었습니다. 취업규칙이 본래 의미와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상과,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무조건 얻도록 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 사이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판결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납득이 잘 가지 않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2도5827 판결(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법 사례)은 권리행사방해죄가 일종의 신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실행한 사람은 해당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죄, 정범이 무죄이므로 교사법도 무죄라는 요지로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권리행사방해죄를 우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은 간접정범의 범리를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봅니다. 이외에도 불법목적의 주거침입 상황에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평온임을 확인한 대법원 2017도18272 판결, 노동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대법원 2017다46274 판결, 위법한 정의행위에 대한 조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집행방조죄의 성립 과정에서 그 요건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에 입각해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한 대법원 2017도9835 판결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와 같은 약50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제가 살고 있

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을 뜻깊게

느끼고, 그동안 여러 법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판례를 통해 조금 더 제대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국가의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될 뻔 한 대위기의 사태를 맞은 바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동국대학교 김 ○ 원

우선 모니터링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점이 아쉬웠다. 다음 봄에 있을 학점이수 봉사활동에는 대면으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정감사 그리고 국회모니터링에 참여했는데, 10월 24일의 모니터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국정감사에서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 일부 내용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리포트에는 업계 동향 보고서가 아닌, 악성댓글에 가까운 주장들과 아이돌 멤버를 상대로 외모 품평이 담겨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coo의 해명, 아티스트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더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아티스트 승관이 "연예인 직업이 사랑을 많이 받기에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견뎌야 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며 모니터링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지만 때로는 많은 이들의 다양한 시각들로 인해 논쟁거리나 되려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모니터링의 주체가 아닌 시청자로 참여했음에도 신중하고도 예리한 시선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해야겠다고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에게 도움될 법한 법률 지식을 써칭하면서 유사 법조인으로서의 경험도 할 수 있었고, 법률에 대한 시야를 넓히도록 만들어주어 의미있었다.

### ○ 명지대학교 김 ○ 정

이번 법률연맹 자원봉사 활동은 내가 몰랐던 부분의 내용과 지식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로스쿨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더욱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자는 마음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 번역봉사, 국정감사 활동,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약점이었던 영어를 극복하고자 번역봉사를 진행했고, 의무 활동이었던 국정감사활동은 정처에 무관심했던 나에겐 유익한 활동이 되었다. 또한 한 사건에 대한 1, 2, 3심 전체의 판결을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판결 리서치 활동은 한 사건의 1심, 2심, 3심 판결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했다.

가장 먼저 진행한 국정감사 활동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활동으로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편이라 현재 정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부 부서가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국정감사를 처음 보면서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의 감사 태도와 질의 태도에 예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느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과 선거의 기회를 보다 신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많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경찰청, 법원 등에서 이를 위해 부서 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인지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고 나 또한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정감사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정당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어렵겠지만, 부서를 감사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국정감사로 변화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번역 봉사 활동은 준비아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준비아라는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없어, 그 나라의 정치 형태와 역사, 경제상황 등 사전 조사 후 번역

봉사를 시작했다. 헌법번역을 진행하면서 잠비아 헌법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헌법과 비슷한 점이 많아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번역 과정에서 잠비아 정부 홈페이지 등을 찾아 들어가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부 구성과 잠비아의 정부 구성 형태 차이, 잠비아의 정책, 각 부서 조직형태를 알아볼 수 있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병합된 민사사건을 가지고 진행했다. 또한 공동피고인 사건이었기에 좀 더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판결문을 다 읽고 난 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보증금 반환 책임에 대한 각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었고, 1,2,3심 전반적으로 같은 법리를 취하여 사건을 분석했기에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경험하면서 위와 같이 학과에서 수업만으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내가 관심이 없거나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생각의 변화가 가능했기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 ○ 중앙대학교 김 ○ 진

중학교 시절, 일련의 경험을 계기로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법조인이라는 장래희망을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술회와 같은 법 관련 활동들에 참여하고, 철학 고전 독서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여한 활동들은 그 과정과 결과가 추상적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조금 더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활동을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법률소비자연맹의 2024년 봄학기과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봉사활동은 현실과 직접 맞닿아있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법률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와 동시에 저의 여러 역량을 점검하고 기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더 본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24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활동이었습니다. 본 활동에서 경찰청, 헌법재판소, 법제처, 대검찰청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정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영향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 감사에서 진행된 논의의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국정감사에서는 법령의 제정과 해석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시대에 맞는 법률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는 사법 신뢰를 보장 위한 공정한 수사와 검찰권 행사의 중요성이 되새길 수 있었으며,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국정감사의 내용이 요약된 신문기사만을 보았기에 처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을 때는 전 과정을 톺아보며, 그 흐름을 바로바로 읽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듭하다 보니 국정감사의 과정과 주요 안건, 그리고 쟁점들에 대한 근거들을 정리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네 기관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감시와 평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 모니터링 활동은 국가의 운영과 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헌법적 가치와 법령의 체계, 그리고 검찰권 행사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보며, 공익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며 관련 정책과 법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주었고,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만 아니라 본 활동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뜻 깊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더 의미 있고 보람찬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뜻깊은 봉사활동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산대학교 남 ○ 현

이전까지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법 수업을 듣고 법에 대한 지식을 조금 쌓았을 뿐 특별한 법 관련 활동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 법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 관련 봉사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내가 진정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은 게 맞는지 확인할 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 봉사활동 종류는 필수항목인 국정감사모니터와 선택항목인 법정모니터링이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이란 국정감사를 방청하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발언이 정말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인지를 판단하며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확인하며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확인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하며 내가 느낀 점은 생각보다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위원들이 있는 반면 형식적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었다. 감사를 잘하는 위원들을 보면 감사를 하는 게 유익하다고 느낀 반면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위원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정말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화가 났다.

법정모니터링은 법원에 가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행정 또는 소액 사건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선 판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는지 재판 시작 시간을 잘 지켰는지 증인 신문 시 위치 시 처벌받는 걸 고지했는지, 검사의 재판을 대하는 태도, 변호사의 재판을 대하는 태도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법정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법원을 처음 가봤는데 법원의 엄숙함과 내가 항상 생각만 하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를 보니 미래에 나도 꼭 저곳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았다. 학교에서 형법 수업을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방청하니 이론으로 배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실무에서도 자주 나오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몇 번의 방청에서 기억이 남는 부분은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생각보다 실무에서 많이 다루어져서 신기했다.

한 학기를 정말 뜻깊게 보낸 거 같아 뿌듯하고 법조인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고 너무 재밌었다. 청소년 때 봉사활동을 해본 기억 말고 봉사활동을 해본 기억이 없다. 청소년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한 봉사활동이 아닌 생소한 분야의 유익미한 봉사활동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 내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와 연관된 봉사활동을 하니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내가 법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무지했다면 그저 지루하고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되었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정말 법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며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로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하니 더욱 흥미가 있고 의미미한 봉사활동이 되었다. 그 부분이 나에게 너무 뜻깊고 보람차다. 앞으로 상황만 된다면 계속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법률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며, 이 봉사활동을 하며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 고려대학교 남 ○ 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참여했던 활동은 크게 세 가지이다: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교육,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및 법제사법), 그리고 우크라이나 헌법 번역 봉사이다. 이 모든 활동은 서로 다른 특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 1.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교육

봉사활동에 앞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단순히 활동에 대한 안내를 넘어 봉사의 의미와 책임감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었다. 봉사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활동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교육을 통해 내가 봉사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봉사활동에 더욱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다.

### 2.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은 개인적으로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를 다루며 현재의 기술 발전과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술 발전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 정책이 단기 간의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 3.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 법제사법 분야

법제사법 분야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내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적, 제도적 사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제도적 허점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관찰하며, 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법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으며, 이러한 감시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 4. 우크라이나 헌법 번역 봉사

우크라이나 헌법 번역 봉사는 내가 노어노문학과에 재학 중인 만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데다 약 60%가 유사하기 때문에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인문지리 수업에서 조금 접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이 헌법 번역 봉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은 단순히 언어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헌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번역하며, 그 안에 담긴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목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전쟁 속에서도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나에게 단순한 번역 작업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나의 언어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작은 노력의 가치'이다. 각 활동이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그것이 모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공공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감시되는지를 배우며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고, 번역 봉사를 통해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협력의 중요성도 새롭게 깨달았다. 모든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번역 봉사에서는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번역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는 각자의 관찰을 공유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단순한 경험을 넘어선 배움과 성장을 안겨주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한다. 이번 활동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 성신여자대학교 류 ○ 희

새로운 법조인의 꿈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의 봉사활동 법률연맹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큰 기대나 포부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시작하고 처음 국정감사를 접하게 되었고, 모니터링을 하며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보며 여러 상임위원회와 피감사기관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고, 입법이 사회 많은 분야에 개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감사기관들의 예산에 대한 문제도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회는 독립적인 시스템으로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저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주로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큰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은 긴 시간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부담도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짧은 질의 시간에 많은 법적 발언들이 오갔고, 그로 인해 짧다고 느껴지는 순간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로써 사법에만 관심이 있던 저는 '입법'기관의 기능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저처럼 '법'은 주로 사법의 기능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에서의 법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 감사는 헌법부터 시작해서 하위 법령들까지 모두를 전제 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의견들을 피감사기관에 질의하기도 하고 진행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투명성을 중요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입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활동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법의 판단으로서 법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국회가 있어 입법이 사회와 맞닿아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 까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 기회가 된다면, 이번 학기에는 하지 못했던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 등을 하며 여러 활동들 각각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모 ○ 진

2024년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얻었다. 이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봤지만, 법률 봉사활동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의 법률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흥미를 느꼈다. 특히 이번 가을학기에만 가능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내가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만든 가장 큰 동기였다. 해당 활동을 통해서 국회 활동을 직접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내가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정감사는 뉴스에서 자주 접했던 만큼 단어 자체는 익숙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는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유튜브에서 국회의원 간 언쟁을 편집한 여러 영상이 화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나 또한 시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 또한 국민으로서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다. 이외에도 번역봉사, 판례 분석, 기타 법률 봉사 활동이 있었지만,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중심으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회의가 10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때로는 장시간 회의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게 느껴졌다. 하지만 끝까지 모니터링을 마쳤을 때의 성취감은 그만큼 컸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피감사기관의 업무와 행정에 관해 돌아가며 여러 문제를 언급하고 논의했다. 내가 참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도 각각 여러

주제를 다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LH와 관련된 용산공원 토양 안정성 문제를 비롯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 상승 문제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논의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사도광산 문제, 문화재 침탈 이슈 등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감했다. 특히 국토위의 LH 국정감사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상승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정책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여야 간의 갈등이나 정치적 공방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장면은 아쉬움을 남겼다. 서로 간의 언쟁이 심화되어 회의가 휴정되거나 고성이나 오가는 순간들에서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행정의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국정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화제성이 있는 요소들 뿐 아니라 국정감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했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국정감사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된다거나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이름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했다.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 모니터링하더라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국민과 행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평가하고 더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매우 필요한 역할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임감도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헌법 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색다른 경험을 했다. 법률 번역은 기술 번역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순한 외국어 능력뿐 아니라 한국어 어휘력과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했다. 나는 이중 전공으로 외국어를 전공했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번역의 정확성을 유지한 채로 헌법의 맥락에 맞는 번역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국 헌법과 법률 문서를 참고하며 법률 용어와 문체를 익혔고, 번역 과정에서 내 번역본을 기존의 법률 번역과 비교하며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번역 대상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고유명사를 어떻게 옮길지 깊이 고민했다. 번역을 위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번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많은 것을 남기는 경험이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봉사 자체가 목적이었고, 활동이 끝난 후에도 특별히 느낀 점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은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만큼 배움과 성장을 가져다준 소중한 기회였다. 법률과 공공 이슈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봉사활동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더 많이 알려지고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 ○ 연세대학교 박 ○ 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처음으로 참가하며 진행한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뜻깊었다. OT, 국정감사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며 여러 면에서 배우고 성장했다고 느낀다.

우선 OT는 아침계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주어진 자료들을 읽으며 민주사회에서 법의 중요성과 봉사활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단순히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 통보받는 것이 아닌, 하나의 대학 교양 수업을 듣는 느낌이라 더 의미있었다. 이후 이번 가을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과 선택 활동인 판결문 리서치를 신청하여 봉사를 이어갔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10월에 진행된 국정감사를 사진

및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입법부가 제대로 행정부와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피드백하는지 평가하는 활동이다. 내겐 이번 활동 중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제일 의미있었다. 나는 봉사에 참여하기 전부터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대다수 시민들은 국정감사를 뉴스와 미디어에 보도되는 내용으로만 바라본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다루는 국정감사는 특정 의원이 목청을 높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국정감사가 다름으로 인해 파행되는 등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실제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문을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나는 10월 15일에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와 25일에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감시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추태를 부리기도 했고 피감사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대체로 국정감사의 전반적인 진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명확한 증거나 법적 근거를 들고 오지 않고, 그저 사건에 근거하여 말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결국 국정감사의 의의는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빈약하다면 국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되기에,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후 11월부터 판결문 리서치를 신청하여 진행했는데 내가 맡은 판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는 동안 같은 판결문을 적게는 3번, 많게는 5, 6번 이상 읽으며 판결문을 소화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논거, 이를 판단하는 법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여러 이슈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두 판례 모두 1심에 비해 2심과 대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는 비율은 50% 정도이며, 파기된 사건의 90%가 양형이 변경된다고는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례의 경우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극단적이라 할 만큼 바뀌어 놀랐다. 그리고 이 점이 현재 법원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를 아는 재판당사자들은 1심에서 납득가능한 판결이 나와도 2심에서 더 형량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항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법원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이 크게 다르다면 어떠한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9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그럼에도 여러 의미있는 활동들을 진행하며 보람찬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면 법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헌법 번역과 같은 이번엔 참여하지 못한 활동도 지원하고 싶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친다.

### ○ 고려대학교 박 ○ 영

2024년 가을학기 법률 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법률소비자로서의 책임감과 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경험의 차원을 넘어 저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봉사의 의미와 '법률소비자'라는 개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률소비자는 단순히 법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주체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 연맹의 봉사는 처음인데, OT를 통해 이와 같은 법률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저에게 매우 새로운 면서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공계 지원책 개선

방안, 해외발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그리고 통신사 관련 문제와 같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R&D 카르텔 의혹과 관련된 문제는 공공 정책과 법률이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고 관리하는지를 보여 주었으며, 단통법 폐지와 요금제 개선에 관한 논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법률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 정치적 중립성, 양형 기준의 통일성, 공소장 일본주의의 중요성, 그리고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규명 등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다루는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저는 법이 단순히 규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대변하며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법률소비자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추가로 진행된 바누아투 헌법 제8장 번역 봉사활동은 제가 학교에서 수강한 헌법, 대한민국헌법사 등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생소한 법체계를 번역하며 법률 언어의 중요성과 정교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법률적 사고력이 한 층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법률 관련 지식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소비자로서 주체적으로 법률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세를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제 진로 목표는 단순히 법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민과 사회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이를 법의 언어로 대변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법률적 소양을 심화시키고, 국민과 사회를 위한 법률소비자로서, 더 나아가 책임감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연세대학교 박 ○ 루

법률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 벌써 3회차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성장하며,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합니다.

저는 2024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으로 2024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과 국내외의 사법제도·헌법 등 번역 및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번역봉사의 경우, 일본 검찰청법을 번역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검찰 및 경찰 체계를 비교하며, 차이를 반영하여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제도와 구체적인 법률을 먼저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저는 총 2개의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첫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국정감사(10월 15일 진행)고, 둘째는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던 국정감사(10월 24일 진행)입니다.

먼저,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의 경우,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체와 YTN 민영화에 대해 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YTN 민영화 절차에 위법성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여당 측에서는 TBS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있음에 집중했습니다. 긴 시간 진행된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의 국정감사의 경우, 의대증원 및 의료 개혁 추진 문제와 AIDT(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시 국민적 합의 및 재정부담 문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교육학과로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주요 교육 이슈를 관련 기관이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무

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현장에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올해 6월 국회에 도입 유보를 촉구하는 청원이 회부되었을만큼, 지역별 관련 기기 보급률의 격차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촉구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오리엔테이션 교재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국정감사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서, 의회민주주의 성숙과 정착에 기여해왔습니다. 국정감사를 직접 지켜보며 국정감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고민하고,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부처의 정책 및 계획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적 지식을 키움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겨울학기에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률소비자연맹의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에 함께하겠습니다.

### ○ 동국대학교 박 ○ 연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이번 학기에 교내 참사람 봉사단체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봉사활동으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점이 많았다. 평소 국정감사를 자주 보는 편이 아니었고, 더욱이 국정감사 전체를 시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서 거의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모두 모니터링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보람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니터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티 날 이후 매뉴얼을 받았을 때는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모니터링을 하며 시간을 재고 이슈를 요약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해내야 하는 점이 어려웠고,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 가장 처음으로 모니터링해본 국정감사의 피험기관은 국토교통위원회였는데,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쩌면 이번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몰랐을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물론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는 상황도 종종 발견하였지만 그 또한 국정감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고 진행한 봉사활동은 영문으로 작성된 헌법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헌법을 읽는다는 것이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고, 법률 용어가 많아서 번역 봉사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의 헌법이었는데, 아주 생소한 국가임에도 세계 각국의 공통된 정치 법률이 존재하여 흥미로웠다.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그렇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들은 절대로 쉽고 편한 활동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봉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느껴졌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다. 해본 봉사들은 보다 능숙하게 해내고 싶기도 하고, 기간이 지나거나 시간이 모자라 해보지 못한 판결문 리서치, 언론 모니터링과 같은 활동들을 위주로 시도해볼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엔 시간이 맞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국정감사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해보고 싶다.

### ○ 고려대학교 박 ○ 빈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대학생활을 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고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 법률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법률소비자연맹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을학기 봉사 참여자였던 만큼 주요 활동은 국정감사였습니다. 환경 노동 위원회, 국토 교

통 위원회, 기획 재정 위원회를 선택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정감사의 일부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빠르게 진행되는 일정에 놀

랐고, 국회의원당 배정된 발언시간이 너무 적게 느껴질 만큼 밀도 있는 질문들이 이어져 놀랐습니다. 물론 태도가 불량한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의 국정감사 참여자들이 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감사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끼며 참여하였습니다. 긴 시간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을 평가 하는 일인 만큼 성실하게 임하고자 했습니다. 국정감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보고서작성에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으나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채워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현안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법조인을 지망하고 있기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가 의미 있길 바라는 마음에 판결문 리서치를 작성할 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했고, 논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판결문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대로 읽어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스스로에게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렵 곳이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재판 모니터링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학교 수업 일정 때문에 여러 번 가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법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조금 긴장하고 방문했는데, 불편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고 경비가 삼엄하지도 않았습니다. 판사의 권력이 막강한 만큼 불량재판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서 재판장 분위기가 어떻게 잘 예상이 가지 않았는데, 제가 방청한 재판은 모두 평화롭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문제 되는 상황은 목격하지 못했고, 오히려 재판장님이 현명하게 재판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벗어나 재판이 무엇인지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작업이 대부분인 봉사였지만, 그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 보고서 하

나를 완성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고, 그 내용 역시 공부하듯이 차근차근, 또 꼼꼼히 채워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성취감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귀중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진행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제가 예상했던 것 만큼 뜻깊었습니다. 활동하면서 공부도 많이 되었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책무를 다했다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얻게 된 것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 마냥 만족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감수성이 풍부한 편인 탓에 지금의 사회 시스템에 만족하기보단 더더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과 여기에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도 결국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허함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회, 정부, 법원에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생각보다 든든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높아만 보였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생각보다 낮은 문턱만을 두고 열려 있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최소한 제가 봤던 사람들은 모두 본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겼던 시간이었고, 제 리서치가 다른 시민들에게 신뢰 형성의 가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저 역시 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 ○ 동국대학교 박 ○ 희

이번 2024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으로 법률소비자연맹

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은 국회의원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 행정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해보았고 하루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모두 모니터링한 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별로 정리해보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감사위원과 상임위원장, 피감기관장에 대한 평가 또한 진행해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저는 국정감사 활동이 공공기관과 행정부처의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입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에서는 1심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판결문의 판결요지와 판결전문을 분석해본 후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결문 속에서 관련 법률 용어를 해석해보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처음으로 진행해 본 사건은 후원금환환 청구의 소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민사사건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법률이 현실 사건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배울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판례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내용을 정리해 나가면서 쟁점과 개요가 점차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뿌듯한 느낌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저 또한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처음으로 경험해보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해본 사건은 임금등 청구의 소로,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민사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두 번째로 진행하면서는 하나의 사건에서 기초사실 별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의 입장에 따른 다양한 법리해석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같은 기초사실에서도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식에서 따라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법조인이 되어 사실관계에 근거해 합리적인 주장과 판단을 이끌어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첫 번째 활동에 비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이 많았고 1심에서부터 3심에서까지 재판부의 판단 또한 여러 번 갈렸기 때문에 쟁점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지만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보았고 주장과 근거를 묶어 정리해나가다 보니 판결문에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판단과 근거를 이해할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법리해석 능력과 논리력을 갖춘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한층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 사건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다룬 사건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등이 문제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해보았지만 형사사건을 대상으로는 처음이었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피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 사례를 배우게 되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과거에는 무겁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형사사건이 언론 보도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보다 규율이 엄격해지고 이에 따라 현실 판례 또한 엄중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의 꿈을 꾸면서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현실의 변화에 발맞춰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저도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법적 논리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법이 어떻게 적용

되고 해석되는지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공직자들에게 예리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정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다루지는 이슈들이 국민들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서, 법과 정책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판례를 분석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판례의 구조와 논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는 법률을 다룬 판례를 분석하면서, 법이 현실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발전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조인의 꿈을 더욱 꿈꾸게 되었고, 실제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 ○ 동국대학교 박 ○ 주

2024년 가을학기에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학교 수업과는 또 다른 실질적인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저는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선택 활동인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며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활동 모두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봉사라 아니라 법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2024년 가을에 진행된 국정감사 중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을 선택해 내용을 분석하고 국회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저는 국정감사를 짧은 영상 클립이나 요약된 기사를 통해 간단히 접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 전체 국정감사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정감사의 실제 진행 방식과 세부적인 흐름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모니터링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환경 문제와 노동 이슈가 복합적으로 다루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을 접하며 국정감사가 단순히 큰 이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결과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분석하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저로 하여금 사회적 이슈를 폭넓고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이었던 법정 모니터링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라인 재판과 해외 국적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처음 방청을 한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온라인으로 출석하여 판사가 온라인에 있는 변호인에게 질문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지금까지 제가 방청했던 재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기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국적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통역사분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통역을 해주시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보며 사법 절차의 세심함과 중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밖에서 대기하던 중,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사람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약간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판 내내 울던 피고인이 재판이 끝난 후 활짝 웃으며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인간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이 쉽거나 단순히 즐겁기만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학기 봉사의 특성상 학교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여야 했는데, 시험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봉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사회와 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저에게 큰 의미를 남긴 활동이었으며,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것이라 믿습니다.

### ○ 용인대학교 박 ○ 정

이번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학문적이고 개인적으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법률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법의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짐바브웨 헌법 번역, 판결문 리서치,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활동을 통해 법률 실무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짐바브웨 헌법 번역 작업은 저에게 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용어와 절차를 접하며, 다른 국가의 정치적 문화가 어떻게 법률에 반영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률을 다국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법률적 사안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의 적용과 그 결과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으며, 법률 전문가로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회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뉴스나 신문에서 접했던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정책의 심사와 검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정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진정으로 국정을 감사하려는 의도보다는 각 정당의 주장을 거둬들이며 펼치는 장으로 변질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활동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이번 봉사활동은 때때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이 경험이 제 학문적 성장과 진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이번 학기 활동은 정말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며, 앞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경희대학교 박 ○ 찬

이번 법률 봉사활동은 제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문적으로 정치와 행정, 법적 이슈에 대해 배워왔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접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정치와 법의 실무적 측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세 개의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각 위원회는 그 성격과 다루는 사안이 다르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방식 역시 상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각 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쟁점들, 정부와의 질의응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

적 역학관계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행정적 문제와 협력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비효율성, 예산 배분 문제, 그리고 민원 처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권한 분배와 협력 구조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 세금 정책, 예산의 집행 방식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재정 계획에 대한 질의는 정부의 경제적 정책이 국민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그 실행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이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여러 위원회에서 김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다뤄졌으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의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에서,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고, 정부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관찰하면서, 공적 인물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은 정치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능력의 향상입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행정이 어떻게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각 위원회가 어떤 정치적 목표와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 사고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논리적 사고와 객관적 분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많은 고민과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각 위원회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정치적 및 법적 함의를 분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며 저는 문서 작성 능력과 정확한 정보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가 다루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정치의 연결점을 이해하고, 실제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역학 관계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번 경험을 통해 법적 사고와 분석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으며,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제게 큰 의미를 주었고, 향후 법과 정치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같은 중요한 공공의 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봉사활동 담당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 한양대학교 배 ○ 언

대학에서 법학을 주로 배우는 전공의 학생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꼭 법률과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외활동과 학기를 병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에 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므로 학기와 병행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평소 주변 동기들로부터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에 대해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나 2024년도 가을학기 봉사를 신청하여 한 학기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을학기 봉사가 다른 학기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이 의무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감시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질적인 불신이 암묵적으로 제 마음에 자리잡고 있던 탓에 이번 봉사활동으로 국정감사를 접하기 전에는 한 번도 자발적으로 국정감사를 시청하거나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등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는데, 한 번도 국정감사를 찾아본 적이 없었기에 국정감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새롭게 알 수 있었고, 현재 국가 운영에서 가장 문제되는 현안들이 무엇인지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손에 꼽았고, 현재 중요하게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 역시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정치와 시사에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감시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수업을 통해 배운 적이 있어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질책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하니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를 감시하는 외부의 견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권력분립과 상호감시 및 통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든 생각은, 위원회도 야당과 여당의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보니 질의 과정에서 가끔 정당끼리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국정의 운영을 감시한다는 본질적인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정당끼리의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는 상황이 빈번했던 것 같아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이 끝나고 두 번째로 했던 봉사는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법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의 판례들을 모두 접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청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검찰 쪽 진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형법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기에 형사 사건 판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사보다는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좀 더 단순하기도 하고, 그래도 꽤 많은 판례를 읽어본 경험이 있기에 판결문을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하고 꽤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법학 수업을 들으며 시험 공부를 위해 판결 요지를 중점으로 공부하던 것과는 달리 이 활동에서는 판결문 전문을 읽어야 했고, 전문 속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에서 대립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형사소송론 수업을 수강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었기에 예전에 그냥 표면적으로 판결문을 읽을 때와는 달리, 판결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실제 공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판사는 어떤 말을 하고 검사와 변호사는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제출된 증거목록을 보면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머릿속에 그려져서 더욱 재밌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봉사를 끝마치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점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양한 활동을 접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었기에 감사하게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법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지만, 학기 중이라 직접 법원이 가서 방청하고 재판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번 가을학기 봉사보다 더 다양

한 활동에 도전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평소 법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치는 왠지 모를 반감과 제 삶과는 거리가 먼 행위라는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고고 살았었는데,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오히려 정치는 내 삶과 별개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있는 생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계기로 뉴스나 기사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여러 기관들의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국민이 되려면 정치와 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 전문가로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 꿈이 더 확고해지지는 좋은 경험이 각자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점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 ○ 성관대학교 백 ○ 선

처음에 2024-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저로서 법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대학생으로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리고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양질의 경험을 하며, 법과 제도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점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봉사활동 기간에 크게 두 가지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 두 번째는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작용과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감사기관으로,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감사기관으로, 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법부의 주요 사안과 관련된 정책과 이슈를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현장 모니터링 봉사활동은 국정 전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그 현장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활동은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각 기관들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운영과 정책 집행에 대해 입법부가 어떤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역할을 수행하는지 직접 목격하며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단순히 시민단체로서 또는 NGO 위원으로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국정감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법부와 법관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다양한 법률 사건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을 통해 단순히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의 근거와 논리를 세밀히 검토하며 법률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적 쟁점과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을 직접 체감하며 법률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법관의 판결이 단순히 법률 조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고려한 깊은 통찰과 고민의 결과라는 점도 알게 되었고, 재판부의 판결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저의 꿈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미래에 법조인이 된다면 스스로 어떠한 가치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습득을 넘어 저의 법적 사고와 시야를 확장하고, 사법제도와 판결문의 역할 그리고 판례 분석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개인적으로도 지속해나가며 미래에 법과 정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2024-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제가 법조인이라는 꿈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며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 ○ 부경대학교 서 ○ 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대학에서 배운 법학 전공 지식을 봉사활동에 활용함과 동시에 그것을 함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혼자 시도한다면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이론의 실 활용례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령 국정감사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을 통해서 의원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지, 언론이 주목하는 이슈와 의원의 발언이 맞물리는지 등을 보아야 하고 발언의 실효성이나 시의적절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법정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을 통해서 판사와 검사의 태도는 어떤지, 그리고 변호인이 원고 피고 피고인을 위해 얼마만큼 사건을 숙지하여 변론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봉사활동에서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가을 이전에 졸업을 하고 나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활동 중 하나였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법에 완전히 무지하다시피 했다. 아는 만큼 들린다더니, 뉴스로 정세에 관한 내용을 접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해서 흘러들기 일쑤였다. 법학과에 진학한 후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이 제법 드물어졌다. 그리고 전공 강의인 '국가구조론'을 수강하며 정세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개인에게, 나아가 사회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 또한 국가 구조의 한 축인 의회에 대해 학습하며 국정감사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해당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 지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정기회 기간이면 '모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다더라' 하는 인터넷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그것이 숲이 아닌 나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며 깨닫게 되었다. 국정감사를 여러 차례 모니터링 해보니 첫째로는 정당 간의 이해관계 상충이 눈에 띄었고, 둘째로는 정당이 중시하는 가치가 드러났으며, 셋째로는 각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적 정책이 보였다. 특히 10월 14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절감했던 것 같다. "일제시대 당시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장관을 퇴장시키고 차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그러한 발언은 국정감사를 방해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 발언의 옳고 그름 여부와는 상관없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갑론을박 끝에 위원회장이 장관에게 퇴장 조치를 명하자 감사가 파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어떤 이슈에 주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당의 동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 기관과 국회가 주시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시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여러 의원이 거듭 질의하는 내용이라면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고, 한 의원만이

언급하는 주제라면 내가 잘 모르고 있던 사안일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선택하게 되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수많은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의 전문을 읽었으면서, 그리고 각종 소송법에 대해 배웠으면서 그 법리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방청하며 맨 처음 받은 느낌은 '사건들이 정말 빨리 넘어간다.'였다. 물론 민사소송법 강의에서 법원은 행정적 여력으로 인해 한 사건을 확실히 끝낸 다음에 다른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동시에 검토한다고 배웠지만, 사건당 평균 5분을 소요하고 짧으면 1분도 걸리지 않을 줄은 몰랐다.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만큼 소송당사자들의 변론은 소극적으로 느껴졌다. 11월 28일에 방청한 형사사건(항소심)의 경우에는 변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말이 없다고 답변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대부분의 소송당사자들에게는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텐데도 그랬다. 아마 1심과 2심이 사실심이어서 증명할 것이 사실관계밖에 없기에,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서류로 제출했기에 더 변론할 부분이 없는 건가, 하고 막연하게 추측해 보았다. 또한, 비록 민사소송 이틀과 형사소송 하루를 방청했을 뿐이지만 내가 본 모든 판사들께서 최대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봐 주시려고 하셔서 인상 깊었다.

60여 시간의 봉사활동이었지만 이로 인해 나의 지평이 확실하게 넓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당초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서 기쁘고 뜻깊다. 더욱이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법정 모니터링을 하며 학사 과정에서 배운 법리들을 복습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고 생각한다.

### ○ 동국대학교 손 ○ 비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법학과에 진학했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 이번 사회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가을학기 사회봉사의 필수 활동은 국정감사모니터링이었으며, 내가 추가로 선택한 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이었다.

평소에 뉴스에서만 보았던 국정감사 현장을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제들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상황도 있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있어 조금 아쉬웠다. 또한 하나의 국정감사가 약 8시간씩 진행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이 국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느꼈고, 앞으로도 이러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자유민주주의가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고등학생 때부터 종종 법원 방청을 갔었기 때문에 그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법원에 갔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흥미로 시작해 사건을 중심으로 방청을 했다면, 이번에는 모니터링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법부의 역할을 모니터링 해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변호사, 원고, 피고, 증인들에게 더 집중해서 방청을 할 수 있었다. 민사재판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판사가 원고의 권리를 보장해주었던 것인데, 증인과 원고의 변호사들의 발언에 집중하면서도 원고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판사가 재판 중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집중하고 판단하고 있음을 느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청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는데, 형사 사건의 증인 신문을 보면서 증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증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판사가 변호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증인을 보호하는 태도에서 판사에게는 많은 역량이 필요함과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기도 했다. 법정 모니

터링에서도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와 같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일을 내가 직접 보면서 잘 진행되는 것에 안도감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스스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의견을 내기도 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음 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또 한 번 모니터링단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학기 모니터링 활동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켜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나의 진로를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져야 할 태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 고려대학교 손 ○ 연

2024년도 봄학기에 한 차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했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 다양한 전공 관련 판결문을 찾아보며 환경 분야에서는 어떤 쟁점이 주로 판례에서 다루어지는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기의 봉사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며 사법정의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는 평소에 무슨 활동인지 잘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상청을 감사한 환경노동위원회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는데, 평소 기상청이 하는 직무에도 관심이 많았고 전공에서도 기상학 관련 내용을 많이 배우며 익숙했던 정부기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의 문제점이나 예산 관련 문제는 없는지 국회의원의 질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단편적이고 편면적인 부분만 확인하는 상투적인 질문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실제로 여러 많은 일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확인하는 질문은 많지 않음에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기상재난 관련 경보나 인명 관련한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도 적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국정감사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질문인지 확인하였으며 국정감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리서치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판결문을 스스로 찾아보고 분석하며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문의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결문이 어렵게 쓰이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 판사였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판결을 분석하는 것에서 넘어서 판결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한 판결문리서치는 주로 환경법 분야와 행정사건을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특히 행정사건은 국가의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이루어지는 소송이므로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정부기관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원고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공정한 판결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두65894 신고리원자력발전소운영허가처분취소판결과 같은 경우, 원전 설치와 그 주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운영허가처분 취소를 구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여러 행정규정이 병존하고 이 개정과 폐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며 이 규정이 위반한 점이 없는지, 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문을 찾아보며 환경분야에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과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나 실제 피해, 장래의 피해나 영향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을 법원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24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환경 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진로를 더욱 명확하게 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법률소비자연맹이 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경북대학교 송 ○ 지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필수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집중해보았습니다. 평소 뉴스나 기사 몇 개 정도만 간단하게 챙겨보는 편이며,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세하게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지라, 모니터링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비록 온라인 모니터링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 참여하는 듯한 몰입을 느끼고 싶어서, 국회 실시간 중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을 때, 처음에는 '이게 맞나? 국정감사는 원래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원들이 피감기관장에게 예산 지적, 부정비리 지적,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는 그림을 상상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으로 싸움판을 벌이며, 그 중간중간 법원행정처장에게 '특정 인물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피감기관과 큰 관련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내용이었습니 다. 위원장과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대답을 한다'라며 비판했는데,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긴 하였으나, 솔직히 저런 식의 정쟁성 목적이 두드러지는 질문에는 중립적으로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의원들이 있어 너무 당황스러웠고, 의원들이 서로 비교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위원장이 본인이 속한 당의 편에서 발언하는 것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의 유튜브 생중계 실시간 댓글을 찾아보니, 정치적 질문이 나올 때 환호하고, 야당의 편을 드는 위원장의 발언을 칭찬하고, 답페이크 처벌 강화와 감형 기준 개선 등 피감기관과 관련성이 있는 질문을 한 의원들에게 '빠져나가려고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라며 비난하는 분위기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원래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예산 집행과 정책 등에 대한 감사보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현시점 가장 화제인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 옳은 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생각대로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없었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제가 잘못 평가하는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다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새만금공사 등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을 때, 제가 상상하던 국정감사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번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구나'라는 약간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정쟁성 의도를 내포한 질문을 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전세 사기 문제 등 피감기관의 부정비리와 정책의 잘못 등을 잘 지적하였으며, 위원장의 태도가 편파적이지 않은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선의의 보증사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피감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접점은 분위기였으며, 고성어 오가지도 않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이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와 비교하여 확실히 질문의 질이나 분위기 등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감기관의 정책이나 잘못에 대한 지적이러기보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매우 강했으며, 의원들의 매너도 좋지 못했고, 위원장이 편파적이었습니다. 피감기관의 예산 낭비, 정책에 관한 문제점 지적 등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정감사 초반에 몇 의원들이 동행명령 집행에 직접 참

여하러 나가면서 분위기도 조금 어수선했고, 이후에도 의원들끼리 서로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때보다 태도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여러모로 놀라운 점도 많았고, 느낀 점도 많았던 경험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감간이평가 문서 내용 중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낭비, 부정비리, 국정운영의 제도적 미비 등 국정전반을 점검해서 차년도 예산심사와 입법에 반영하는 헌법상의 막중한 권한·책무임에도 예산낭비, 부정비리 지적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하는 정쟁국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는 부분이 너무 와닿았으며,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 덕성여자대학교 송 ○ 엽

#### (1)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정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중요도가 높은 국민들이 국회의사중계시스템으로 각 부처의 정책들을 살펴 볼 수 있었던 점에서 민주주의가 실감 했습니다.이번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느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정책 점검의 중요성

국정감사는 단순히 고위 공무원들을 국회로 소환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의 효과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니터링을 했던, 기상청 국감에서 예보관들의 인력난, 예산 편성, 기후 위기를 위한 기상청의 대책등과 같이 기상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니 기상 예보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에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국민들의 불편에 대해 기상청, 국회가 모두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담화를 통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 2.질의-응답의 수준 차이

의원들의 질의 태도와 준비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은 철저한 자료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짚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시켜주었지만, 일부는 정치적 성향,당론에 의존한 질문을 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주제를 언급한 점들은 아쉬웠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치적 퍼포먼스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점검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태도가 불성실 했던 위원들에게는 불성실 사실이 꼭 전달되어야 하고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판결문 리서치

판결문리서치과정을 통해 판결문의 엄중함과 체계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판단의 논리를 제시하며, 소송 당사자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리서치과정에 서 발견된 주요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논리적 구조의 중요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문부터 읽다 보니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서론, 본론, 결론의 명확한 구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기한 후, 결론을 먼저 확인하고 서론 본론 순서로 읽게 되니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관련법률의 조문,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판사의 논리들이 눈에 들어오자 판결문 전체가 일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로 판사의 생각이 담긴 글로 다가왔습니다.판결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글로 소송의 당사자 혹은 타인을 납득 시켜야 하는 글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 2.객관성과일관성

3심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의 당사자는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소송의 모든 단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결문을 내리는 판사는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의 핵심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오직 증거와 법률적 근거만을 통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결과가 소송의 당사자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언어로 표현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법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는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주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해하고 향유하는 방법을 지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의미 있던 활동이었습니다.

### ○ 덕성여자대학교 신 ○ 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2024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법학 전공은 아니지만, 법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4 가을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있었습니다. 필수 국정감사기관 중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국정감사활동을 선택하였습니다.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법률소비자 연맹의 보고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리를 하니, 국정감사의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감 기관에 대해 감사위원별 질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 관련 주요 이슈로는 기후 위기 시대의 항공기 탄소 배출과 관련된 환경 이슈와 오물 풍선 관련 대처, 다중밀집 지역 안전 관련 경호, 스마트패스, 출입증 항공기 탑승 사례가 있었으며, 여성가족부의 주요 이슈 키워드로는 위안부와 소녀상, 딥페이크 성범죄, 가정폭력과 보호시설, 성별영향 평가, 장관 공석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뉴스로 간단하게 보았던 내용들이었는데, 국회의원의 질의를 보면서 문제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예산이 사용되며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들에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법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국회가 올바른 질문과 취지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자들과 국민들의 감사 또한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구 상층세 법상 배우자 상속 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총 3차례의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례를 접하고, 리서치를 진행하며 쟁점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궁금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선정해 보고 조사해 보니 어려움보다는 흥미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1심의 판결들이 2심과 3심에서 뒤집히는 결과를 볼 때면, 같은 법률이라도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결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3심제가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억울함 없이 판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느끼며 3심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쟁점에도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판례를 읽어 나가는 것에 급급하기도 했지만, 리서치를 진행할수록 법률 용어들이 조금은 익숙해지며 혹시 나에게도 판결의 기회가 있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법기관과 국회의 역할을 감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느꼈습니다. 또한, 판례를 살펴 보면서 3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직접적인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 대해 국민들이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인지하고, 위임한 국민의 권력을 남용하여 올바르게 않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수차례의 질문을 던지는 것

이 민주주의 속 국민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에 봉사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 ○ 경기대학교 안 ○ 연

법률소비자연맹 주계 봉사활동은 현재 대학에서 다양한 법과목을 접하는 나에게 매우 뜻 깊은 활동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국정감사모니터링, 짐바브웨 헌법을 번역하게 되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며 국가기관들이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국가기관감을 철저히 진행하는지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고, 감사에 참여하며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에 힘 쓴 것 같아 뿌듯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예단을 가져서는 안될 법원에 국회의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 법원의 의견을 묻고, 독립되어야 할 사법 기관을 지나치게 정치적 이슈로 끌고 오는 모습에 아쉬움을 느꼈다. 또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방어하는데 매몰되어 실제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하는, 국민의 삶과 연관된 주제들을 간과한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유감스러웠다.

짐바브웨 헌법 번역 봉사활동을 하며 헌법의 구조와 영어 법률 용어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헌법은 시대의 변화에도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완성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몇 개의 헌법 조문으로는 이러한 헌법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려웠는데, 헌법 번역 봉사를 통해 앞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그리고 변해갈 세상에서도 유연히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만들어진 법조문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법을 배우며 법률 용어를 영어로 접할 일이 없었는데, 영어로 된 법 조문을 번역하며 다양한 영어 법률 용어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짐바브웨는 단원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양원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원제의 운영방식, 선거방식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 동국대학교 양 ○ 진

‘국정감사’라는 단어에 대해 개념 이외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처음 사회봉사 중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대해 막연함이 있었다. 국회에서의 일은 아직 내가 관심 가지기 어려운 주제라 생각했고, 흔히 말해 어른들의 일이라 느꼈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국정감사의 일정과 진행된 국정감사 영상이 모두 게시되어 있다. 국정감사 접근성이 굉장히 쉬웠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모두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뉴스에서 보는 일부 국정감사의 모습은 오로지 소속 당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고, 국회의원이 라 하면은 말을 계속 바꾸고 자신이 말은 바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이러한 편견을 버리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선택하였는데 해당 감사에서는 KPOP 산업처럼 나의 일상과 관련된 주제가 다뤄지기도 하였다. 낯선 주제라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사회의 모습이었고 여러 분야가 연관되어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는 기본 7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한데 모여 입법 정책과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함과 경이로움을 느꼈다. 내가 관심 없고 모르는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가 자신이 말은 바를 다 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평소 들어보지 못한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이 있었고 감사 주제가 있었는데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리일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지고, 뉴스 등 시사에서 광범위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국정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질의한 국회의원별로 점수를 매기고 잘한 의원과 못한 의원을 따로 작성하였다. 국정

감사에서 모든 의원이 주제에 맞는 질의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국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된 일부 의원들이 분명 있었다. 다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정적인 시선을 떨쳐내고 비판적인 시선을 기를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하는 의원과 주제와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의원을 구분하며 잘못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담고 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판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제도를 위해 국가의 일원으로서 기여했다는 뿌듯함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라도 내가 지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대학생들이 주권을 갖고 국가 이념인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 연세대학교 양 ○ 성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자로 활동하며,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헌법 번역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은 저에게 많은 배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법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책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제가 한국의 행정 체계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관련된 사안들을 모니터링하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복잡한 이슈들이 정책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안이 국민의 안전과 권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고민하며,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 번역 봉사에서는 바누아투와 베네수엘라의 헌법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어떻게 헌법을 통해 국가의 비전과 가치를 반영하는지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국의 헌법에서 발견한 공통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과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 반영된 조항들은 제가 법이 사회와 문화의 산물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번역이라는 작업이 단순히 언어의 변환을 넘어, 법률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하며 최근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모니터링한 국방부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 중 일부가 최근 계엄령 관련 논란과 연계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저는 이들이 국정감사에서 정책과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봉사자로서 당연히 주의 깊게 지켜보았지만, 최근 뉴스에서 이들이 그것에 관여한 정황을 접하고 신기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의 배경과 그들이 제시하는 의도가 법적, 윤리적 맥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특정 과제의 수행이나 결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의제에 대한 토론이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며 사회적 갈등이 법과 정책을 통해 어떻게 조정되고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보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법 조문의 윤리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봉사를 통해 법의 가치를 사회와 연결하고 이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헌법 번역 작업은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이자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기초라는 점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그 나라의 가치와 문화가 헌법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배우는 과정은 국제적 관점에서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얻은 교훈은 제가 추구하는 법률가의 길에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가 마주할 다양한 법률적 도전 속에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윤리를 중심에 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동국대학교 양 ○ 희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전 나의 마지막 봉사활동은 중학교 때 했던 봉사활동이

마지막이었다. 중학교 때 '전국 마라톤 대회 거리응원', '문화가 있는 날 봉사활동', '파리장서를 품은 백세각 정화 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을 하며 힘들었던 기억은 나지 않고 즐거웠던 기억만 떠오른다. 평소라면 해보지 못했을 경험들을 봉사활동을 통해 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 입시에 봉사활동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안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 이번 참사랑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비교육을 들으며 고등학교 시절 품었던 생각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했다.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은 봉사활동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봉사활동을 할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던 것이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버리고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 열심히 하였다.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며, 처음엔 기록된 국정감사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처음을 시작하고 나니 그리 어렵지 않았다.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며 국정감사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평소 뉴스에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로 떠들썩하거나, 어떠한 일이 있었다와 같이 겉보기 식으로만 국정감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한 모니터링을 하며 7-10시간의 국정감사 영상을 보니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국정감사의 진행방식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국정감사에서는 각 부서 또는 분야별로 부조리한 부분이나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영상을 보며 현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평소에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이지만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만 보는 경향이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읽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며 사회 전반의 흐름과 나의 지식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며 나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장점으로는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면서 긴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장점을 발견하였다. 평소에는 이러한 경험을 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활동을 하며 찾을 수 있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진행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평소 강의시간에 집중하는 시간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래서 영상을 보며 집중력이 자주 흐트러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나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긴 국정감사 영상을 보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영상을 보며 눈이 아프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요약하기가 어려워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좀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게 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나니 매우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졌다. 이러한 느낌에 봉사를 하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의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으며, 나의 지식에 대한 폭도 넓힐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나의 장단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봉사활동은 여러모로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다음에 또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생각이야.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봉사활동을 추천하고자 한다.

## ○ 인하대학교 오 ○ 화

2024년, 법률 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기존에 꾸준히 참여했던 번역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매우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 기관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주요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 개혁과 검찰 권한 분산을 둘러싼 논쟁이 주된 주제였습니다. 특히,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법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사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문제,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같은 사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도시 계획이 얼마나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의료보험 재정 악화와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정책이 단순히 법적 구조와 행정적 절차를 넘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각 부처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쟁의 장으로 국정감사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피감기관의 요구받은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 간 대립으로 인해 주요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에서는 손해배상 판결문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법적 판단의 기준과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결문 분석은 단순히 사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법원이 어떤 논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나 책임여부를 증명해내고 결정하는 기준 등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했던 봉사활동 중 판결문 리서치가 가장 어렵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었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어서 매 학기 중 한번의 판결문은 꼭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번역 봉사는 오랜 기간 지속해 온 활동이었으나, 비록 올해는 중국법 번역 수요가 줄어 참여 기회가 적었던 점이 아쉬웠지만, 지난 활동들에서 느꼈던 보람과 성취는 여전히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정책과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판결문 리서치는 법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키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넓은 시각과 깊은 이해를 가진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법률 소비자 연맹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고려대학교 유 ○ 민

2024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단순히 봉사를 넘어 개인 자체의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공인 독어독문학의 지식을 활용해 독일의 변호사보수법을 번역하는 업무에 참여하면서 학문적 지식과 역량을 실제 상황에 접목하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주요 봉사 활동 중 하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국정감사의 절차와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정치 및 법률 시스템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시민 사회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배운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다른 봉사활동으로 독일의 변호사보수법을 일부 번역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제 전공 지식을 법학과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번역 작업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 법률 용어와 문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법률 문서의 특징을 익히고, 독일과 한국의 법률 체계의 차이를 비교하는 법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문적인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앞으로 독어독문학을 기반으로 더 넓은 분야에서 기여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히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복잡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 부담을 느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나만의 분석 관점을 정립하며 성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공 지식을 활용한 번역 작업은 학문적 적성을 법학과 연결시키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할애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실감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과 경험을 얻게 된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제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활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 고려대학교 유 ○ 아

저는 추계 봉사활동 기간 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정책 질의와 정부 부처의 답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과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제 개편 논의,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환경 개선 이슈,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는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정책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태도를 관찰하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제야 후보자들의 공약을 간단히 검색해보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소에는 정책이나 국회의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어떤 주제로 진행되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정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정책과 제도의 흐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국가 정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들이 이제는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려는 자세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관찰하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그들의 책임감과 노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막연히 정치와 정책에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활동을 보다 건설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유권자로서 시민의 얼굴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봉사활동은 공공정책과 국회의원 활동을 가까이에서 모니터링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공정책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 ○ 서울시립대학교 윤 ○ 연

대학에서 중국어를 본 전공으로 법률을 융합전공으로 선택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융합하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을 발견하였고 2024년도 가을학기에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주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이에 관해 토론하며 여러 자료들을 접하는 반면, 중국의 법률을 접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를 번역해 볼 기회는 더더욱 없어 스스로 중국의 법률을 번역해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률과 중국의 법률을 비교 분석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게 된 중국의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비상 대응법이고 1-7페이지를 담당하여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의 법률을 번역해 보는 것은 처음이라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문장을 법률에 맞는 형식으로 작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률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률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 중화인민공화국비상대응법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고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 두 가지의 법률을 반복해서 읽다보니 두 법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1장 총칙 부분을 번역할 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중국의 법률에서는 '堅持', 즉 '견지하다'라는 동사가 자주 쓰인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동사라 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이 동사는 '마오쩌둥 사상'이나 '덩샤오핑 이론'과 같이 비상사태 대응 업무 시 유념하고 있어야 하는 사상 앞에 쓰였고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어떠한 사상을 유념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없었기에 1:1로 대응하는 단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견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을 마무리 하였는데 더 자연스러운 다른 단어로 대체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을 번역하면서 사회동원 체제 구축, 비상사태 정보 공개 체계를 확립, 비상사태에 대한 뉴스 취재 및 보도 체계의 확립 등을 통해 중국이 비상사태에 대응을 할 때 체계를 확립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무질서를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번역 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도 참여하였는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선택하여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평소 우리나라의 법률을 찾아 볼 때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자주 이용하였기에 법제처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고 법제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주요하게 감사하는지가 궁금하여 법제처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선택 하였습니다. 법률연맹의 봉사자가 되기 이전까지 국정감사를 한번도 본 적 없는데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감사 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주요 국정감사 이슈를 정리하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세밀한 감사가 국가기관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중앙대학교 졸업 윤 ○ 영

처음에는 재학생만 할 수 있는 줄 알고 참여를 할 수 없게 될까 걱정하였다. 하지만 혹시 몰라 문을 두드린 것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을 혹시라도 읽고 있는 대학교 졸업생이 있다면, 주저 없이 신청하라고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추계 봉사활동을 통해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과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재판장을 직접 가본다는 것은 평소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으므로, 나에게 꽤나 큰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막상 재판장에 가고 나니, 사실 재판에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었으므로, 큰 용기를 가졌던 것이 우스울 만큼 아무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재판장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아무 일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인생에서 법과 관련된 일이 터지면, 정말 상상도 못할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한다. 사건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무거운 순간들이, 수없이, 수많은 모여 있겠지 싶어 법원이라는 공간이 어느 순간은 괴리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다. 재판장에 있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더없이 반복되는 일상 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끝도 없는 무게감을 주는 일이라는 것에서. 그래서 나에게 법정 모니터링은, 수많은 인생들이 오가는 이 재판장이란 공간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보아야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이번 추계 필수 봉사활동이었는데, 아쉬웠던 것은 일정 상의 이유로 현장에서 직접 국정감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국정감사를 보는 것만으로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있다. 첫째, 일단 '국정 감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나는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부끄럽지만 국정감사가 뭘 하는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냥 이슈만 되는 정보만 알고 지내던 그냥 시민이었다. 국정 감사를 모니터링 하게 되면 국정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고, 국회의원에 누가 있고,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지 세세하고 낱낱이 보게 되기에 국정감사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된다.

둘째, 그래서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시민 모니터링의 기능이 무엇인지 몸소 느낄 수 있게 된다. 덩으로 국회의원에게 내적 친밀감이 쌓이기도 한다. 국정감사 내내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말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료조사를 많이 해왔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에 따라 질문의 질이 달라진다. 그만큼 어떤 국회의원이 얼마나 제대로, 진심으로, 준비해왔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떤 국회의원의 이것을 정치적 쇼로써 발언을 하는지, 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해 발언하는지도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 본질적 의미와 기능을 골똘히 고민하고 재고해보는 계기가 된다. 정당의 색깔에 따라, 극명하게 지적하는 현안들이 달라지는데, 이런 현상이 민주주의적 효용성은 있는가? 이같은 양극단으로 치달고 있는 논쟁은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에게 남기기로 한다.

셋째, 정치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된다. 정치 현안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다. 나는 방통위와 법제처, 공수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있는 각종 해외 기업들의 매출 조작을 통한 법인세 탈세 의혹, 인입 결제 문제, 망이용료 미지불 문제, 당시 방통위원장에 있는 많은 논란과 관련 인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방통위에 파견된 감사인원의 문제, 공수처의 효용성 평가와 공수처 수사를 향한 외압 논란, 삼부토건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 평소 내가 전혀 몰랐던 정치 사회적 현안들이 정말 끝없이 나오게 되는 진귀한 경험을 하였다. 그만큼 내가 사회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부끄러우면서도, 부끄러웠던 만큼 더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면서, 이 소감문을 쓰는 2024년 12월 겨울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뉴스를 보게 되고, 여의도를 향해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

며, 이 나라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까, 무엇을 해야만 할까?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 이 또한 각자에게 대답을 맡기고자 한다.

이같은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  
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 ○ 성신여자대학교 윤 ○ 빈

로스쿨 입시 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봉사활동 시간을 채  
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이라  
는 법률 전문 시민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 단체에서 봉  
사활동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하기로 나누어 운영하며,  
학기별로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  
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을학기 봉사활동의 필수 항목은 국회의정활동 모니터  
링이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각 상임위원들의 질의사항과 특이점  
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봉사활동에 참  
여하기 전까지는 '국정감사'를 여야 간의 정치적 이념 싸움  
정도로만 여겨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로 참여하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사건과 사고, 정치적  
이슈를 깊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들  
의 우려와 요구를 대변하며 피감기관에 질의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국정감사가 중요한 감시 활동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총 4차례  
진행하였으며, 아침부터 밤까지 의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  
의 답변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했기에 체력적으로 힘들거  
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 시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국정감사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장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감시와 정책 개선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법률 번역 봉사활동은 법 체계 전반을 학습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재판소법과 검찰청  
법을 선택하여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고등학교 시절  
선택했던 제2외국어인 일본어를 활용해 매끄럽고 정확한  
번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형법의 일부 조  
항이 일제강점기 일본의 조선형사령에서 차용된 점을 고려  
할 때, 일본 법률 조문에 대한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 법 체  
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본 법률 체계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일본에는 지방검찰청 산하에  
'구검찰청'이라는 하위 조직이 존재하여 지역 단위 사건  
을 폭넓게 담당한다는 점과, 검사 및 검찰총장 임명 구조가  
한국과 유사하지만 일본이 상대적으로 인사 과정에서 정치  
적 중립성을 더 잘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검찰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와 번역 봉사활동 모두 흥미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나,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여러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검사라는 꿈을 가진  
저로서는 이 활동이 특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국민  
적 공분을 일으켰던 주요 형사 사건들을 중심으로 판결문  
을 신청했으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김태현 스  
토킹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상대적 종신형 제  
도를 채택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0년 이상 복역한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심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면 안 된다고 호  
소하는 것처럼 느껴져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단  
한 명의 국선변호사가 피고대리인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궁금해져 추가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서 위 국선변호사가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쌓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글을 접하고 국선변호인 제  
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강력범죄자  
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비판에 동의했던 과거와  
달리,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 위에 질서 아래 누구  
도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앞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될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짧지 않은 3개월 동  
안 법률과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깊이 넓힐 수 있는 소  
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번역 작업, 판결문 리서치  
를 통해 법조계에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배울 수 있었으며,  
법조인이 된 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 봉사활동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 동국대학교 이 ○ 원

2024년 가을학기,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정감사와  
언론 모니터링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  
한 봉사를 넘어 제가 전공적, 인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고, 법과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  
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  
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  
청하며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했습니  
다. 일부 의원들은 민생과 관련된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  
면, 정치적인 비난과 공방에만 치중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  
다. 이를 보며 제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국민으로서 얼마나 중요  
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저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률 소비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10대  
주요 일간지의 사설을 스크랩하고 비교·분석하며 같은 이슈  
도 언론사마다 다른 관점과 논조를 취한다는 점을 알게 되  
었습니다.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언론사의 사설은 공  
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사설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문  
제를 제기하는 등 언론사별로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  
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매체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  
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제 진로인 정치부 기자로서  
의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  
터링 중 의원들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요약하고, 당일 보고  
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은 신속성과 정확성을 요구했습  
니다. 이는 기자로서 필요한 기본기를 기를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  
사에 등장한 기소권, 수사권, 국회법 등 법률적 이슈를 접  
하며, 제가 알고 있던 이론적 법률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면모를 목격하며, 법률이 국민 생  
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국민에게 이를 신  
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러나 언론 모니터링 중 신문을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언론사의 보도 방식, 어휘 사용 등에 따라 독자  
들의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체감하며, 기자로서 기  
사의 균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법과 언론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은 단순한 규범을 넘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은 이러한 법적  
논의와 사회적 현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신뢰  
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가치를 기반으로, 제가 가진  
역량을 더 발전시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는 법률소비자연맹 처음 봉사활동을 했는데 오리엔테  
이션에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  
니다. 저 역시 졸업 후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법률 소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점들은 제가 더 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사고를 갖추고,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모  
색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 동국대학교 이 ○ 원

저는 이번 가을학기에 2024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총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감사위원별 질의 시간, 질의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여 각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니터링한 국정감사는 10월 15일에 실시한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입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등 화학물질에 대해 관심이 많고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예상해서 첫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상대로 해당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마약, 담배에 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7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혼자 끝없이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며,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과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30일에 실시한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딥페이크 사건, 위안부 피해자 명예보호 및 위안부 소녀상 훼손, 가정폭력과 여성폭력 등 각종 폭력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각종 범죄의 처벌과 국민의 법익 보호의 측면에서,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을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었고 성교육과 윤리 교육 등 교육의 필요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9일에 진행된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앞서 모니터링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기존의 배경지식이나 학문적 지식이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경우 평소 접하지 않은 생소한 경제 용어가 많아서 질의내용 이해 및 보고서 작성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현상은 하나의 현상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이곳 저곳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돈과 예산과 관련이 있는 기관인 만큼 이에 대해 예리한 지적이 많았는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의원들을 보며 저 또한 비판적 사고방식을 길러서 공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국가 운영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국정감사의 특성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정보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전공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1학년 때 배우는 기본과목 외의 세부적인 법을 접하고 이를 적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내용의 법이 새로이 제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의 특성상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하는 일이 개인적인 적성에 잘 맞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이 저의 전공 및 저의 적성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성장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 고려대학교 이 ○ 호

이번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가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 봉사활동의 주된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으로 말 그대로 국정감사를 보고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남기면 되는 활동이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부활한 제도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국가 기관과 민간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으로 입법을 집행할 수도 있고, 국정감사에서 부당한 사실을 밝혀주거나, 처음 개선을 위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법률소비자연맹의 가을 봉사활동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상당한 책임감을 지니게 되었다. 그 책임감을 지니고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유튜브 채널 국회 TV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영상의 시간을 보니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10시간이 넘었다. 10시간이 넘는 영상을 보려고 하니 걱정이 되었지만, 중간 쉬는 시간과 국회의원마다 질의 시간이 나뉘어있음을 하면서 알게 되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처음 본 국정감사는 10월 7일에 진행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였다. 전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피감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였다. 처음 질의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KTV 황제 관람을 언급하면서 국정감사가 정치싸움으로 번지나 생각했다. 하지만 추가질의에서 대부분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지 않고, 문제가 되었던, 추극협화와 대한체육회 관련 질의를 했다. 그리고 지역 문화 예산의 감소, 골프장 비용의 증가, 영화산업 등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사안을 질의했다. 이전에 들어보았던 국정감사와 달리 파행이 없었고, 질의 시간도 대부분 잘 지킨 국정감사였다. 이렇게 처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마치고 나니 국정감사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다. 국회의원들끼리 정당 싸움과 고성을 지르며 파행된 과거의 국정감사와 달리 지금 국정감사는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로 최민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오전엔 인터넷 관련 국가 기관, 오후엔 원자력 관련 국가 기관이었다. 오전의 감사는 의원 당, 평균 1번의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국감의 주된 질의는 공공 와이파이, 개인정보 유출, 해킹 관련 질의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의였다. 오후 국정감사는 원자력 관련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나온 질의는 기흥 삼성 공장에서 일어난 원자력 사고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조사,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질의였다. 이외에도 생활 방사능 수치, 북한 핵 관련 질의, 항공 객실 승무원 방사능 측정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함으로 국민의 생활에서 안보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질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도 파행 없이 진행되었다.

두 번의 국정감사 진행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이전과 달리 많이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질의응답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피감기관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튜브로 국정감사를 보니, 알고리즘에 다른 국정감사의 요약이나, 화제가 된 국정감사 장면이 제공되었다. 조회 수가 높은 영상을 보면 대부분 자극적인 영상이었지만, 국민의 문제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 국정감사 장면도 있었다. 기억에 남는 국정감사는 영화 무도실무관으로 유명해진 직업인 무도실무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정감사장에 이들이 나오고 한 국회의원이 그들의 어려움을 법무부에 알리는 국정감사였다. 또다른 국정감사는 아이돌 기획사인 하이브 관련 국정감사였다. 이때 충격을 받았다. 한 기업이 국회의원을 향해 끝까지 추적해 진의를 밝힌다는 입장문을 내보낸 것이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충격적 이어서 기억에 더 남았다.

이렇게 법률소비자연맹의 가을 봉사활동을 끝내고, 나니 국정감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당이 달라 일어나는 싸움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국정감사의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단순하게 친구 따라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직접 활동해 보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어 뜻깊었다. 직접 국정감사는 보러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시간이 된다면, 다음번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서강대학교 이 ○ 은

법률연맹에서 진행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적, 정치적 현실은 물론 각 나라의 법과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예맨과 짐바브웨 헌법 번역 작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정확성을 유지하며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번역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언어와 법체계가 국가마다 얼마나 다른지를 경험하며,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문화적 민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번 학기에는 미국의 군사법을 번역하면서 휴전 국가이자 병역의 의무화된 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사법이 가진 차이점을 비교하는 활동을 위주로 진행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거주나 시민권의 부여에 관한 법률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 전체적으로 민족적인 가치나 혈통을 기반으로 시민권을 인정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눈에 띄었다. 이처럼 다른 문화권의 국가가 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맥락을 달리느냐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법에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영향도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내용과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의 측면에 국한되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 국가의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 법체계의 다양성,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제사법부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국내 정치와 행정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적인 관심이 높은 편이 아니었어서, 평소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만 하던지, 국가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려는 시도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기반해 정치적인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혼란스러운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책의 효과와 집행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실감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논의와 쟁점 사항을 정리하며,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부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사법부가 어떤 위치를 점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각 활동을 통해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와 국내의 다양한 법 제도를 비교하며,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작은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충남대학교 이 ○ 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가을학기 동안 국정감사모니터링과 헌법번역봉사를 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는 공수처, 법제처 국정감사, 국가교통위원회가 하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서비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잠비아의 헌법을 번역하였다.

먼저, 공수처라는 기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어떤 분야의 업무를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통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임을 알 수 있었다.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공수처의 부족함 실제에 관해 여야 막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독립적인 수사권한을 위한 법안 마련, 전문화된

조직마련 및 우선순위에 따른 업무수행)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동시에 공수처의 부진한 업무실적의 원인을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한 국가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법제처의 국정감사 진행 중 세계법제센터를 통한 해외법령제공정책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가 기억에 남았는데, 다른 봉사활동을 신청할 시 이와 관련되어있다고 판단되는 잠비아 헌법 번역봉사를 하며 보람감을 느꼈다. 법제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논의가 많았던 만큼 한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공익을 위한 중대한 일을 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행정학과를 졸업해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만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함,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정치적 이슈(특검, 구명로비 의혹, 추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며 관련된 뉴스기사 등을 찾아보며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중요한 만큼 인사의 지속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공수처 국정감사 당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주제 중 하나인 대통령의 검사 연임 재가 여부에 관해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다행히 재가가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교통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여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교통관련문제를 알 수 있었다. 특히 고속국도 내 2차사고의 심각성과 디지털 사회에 접어들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도입되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한 배터리 품질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안전순찰요원에게 마련해주는 방안, 전기차배터리 정보제공 의무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제도,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더 나아가 이를 위해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는 국정감사의 의의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잠비아 헌법 번역 중 기억에 남았던 헌법은 훈련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훈련된 군대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따로 범위가 정해져있었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와 같은 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찾아본 결과 잠비아의 헌법과 달리 훈련법이 적용되는 법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고 유사한 법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 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국군조직법이라는 법률로 정한다는 점이 있었다. 비록 비슷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타국가의 헌법을 번역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공익에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 삼육대학교 이 ○ 연

우연한 기회로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다. 법률가라는 직업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법률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다. 마침 이번학기에 휴학한 터라 100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봉사자로 뽐낼만큼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도 했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한 것과 달리 의외로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활동도 많았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 낯선 탓에 틀을 잡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도 했다. 때때론 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써냈던 보고서를 지우기도 했었고, 신청해놓고 진행하지 못하는 활동들도 많았다. 시작하기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워보이는 활동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도 같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얻어가는 것도 많았다. 첫 번째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국정감사를 보며 각 부처별로 문제되었던 사항, 대통령 부부의 문제, 국회의원의 태도나 하는 일 등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으며, 그동안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나 자신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였다. 이 활동 덕분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얼굴과 이름이 익숙해지기도 했다. 국정감사 때는 열정적으로, 언성을 높여가며 기관의 비리와 부정을 지적하던 그 모습과 달리 입을 다물고 그저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와 대비되는 두 장면은 내 마음 어딘가를 쓸쓸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 번역봉사를 통해 다른나라의 법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잠비아의 헌법을 배정받았는데 비록 5쪽이라는 적은 분량이지만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법답게 세세한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의 중요성을 알기에 나도 더욱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내 노력을 통해 번역을 완성했을 때는 뿌듯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을 마치며, 이 활동에 더욱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과 해보지 못한 활동들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여기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 서강대학교 이 ○ 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외국 헌법 번역 작업과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법률 문서 작성 및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공공정책의 흐름과 입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헌법 번역 작업은 법률 문서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초반에는, 미국의 연방헌법 등 잘 알려진 헌법과 짐바브웨 헌법의 양식이 달랐기 때문에 번역이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인내를 가지고 사명감을 곁들여 차근차근 번역을 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의 정확성과 문맥에 따른 번역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번역 봉사의 경험은 단순히 언어적 역량뿐 아니라, 제 법률적 사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발견한 법적 개념과 구조는 차후 법조이라는 꿈을 위해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스스로 알지 못했던 사회적 이슈를 한 공간과 순간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사 중 언급되는 심각한 사회 비리나, 가족의 죽음 등 비극적 사건을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관찰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필수모니터링 대상이었던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 영상을 시청하면서, 좁지만 역동적인 서울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업추진 내용과 소시민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예산 배분과 정책 시행의 현실적 한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 교육의 문제가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인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역사 자료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육위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재로 마땅히 도움받아야 할 대상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닿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다 직접적으로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법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봉사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정 모니터링과 이슈 모니터링에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법원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직접 관찰하고 싶습니다. 이는 법학 공부와 더불어, 실무적인 통찰

력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슈 모니터링은 특정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정 모니터링 및 이슈 모니터링을 포함한 추가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다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 ○ 중앙대학교 이 ○ 서

이번 한 학기는 지난 4년간의 학기 중 가장 바쁜 날들을 보냈다. 이번 학기가 시작할 무렵 법률연맹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법에 관한 관심과 다양한 활동들에 호기심이 생겨 신청하게 되었다. 사실 다른 진로를 꿈꾸다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된 법조인이라는 진로는 나에게 막연하게만 느껴졌었다.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하면 좀 더 이 진로가 내게 잘 맞는지도 알 수 있고,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지나가다 한 번씩만 보았던 한 번도 한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적은 나에게 가을학기 필수 봉사활동인 국정감사는 법률과 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영상을 시청하면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사고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와 기관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떤 점에서 예산낭비, 정책 실패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의견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정책과 법률이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국정감사 활동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리서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험은 특정 법률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전에는 수업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 판례를 볼 기회는 많았으나 한 번도 판례 전문을 끝까지 읽어보거나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탐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과 재판 과정에 대해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진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가 리서치한 판례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이미 정해진 딱딱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기존의 내 인식을 깨트리고 사회적 변화가 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법률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능력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며,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법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동시에 법조인이라는 진로를 이루어 개인적인 발전을 넘어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너무 바쁜 학기를 보내게 되어 더 다양한 봉사를 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힘은 내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한 학기동안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법률과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재 인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응용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과 공부를 하며 법학 과목을 수강한 경험을 계기로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리트(LEET) 시험을 준비하며 법률 분야에서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공부 외에 대학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다가 이번 2024년도 추계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법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넓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두 번의 국정감사 온라인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10시

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적도 있어 버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언제 이렇게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고,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하는지, 그리고 정책과 법안을 논의하며 국민을 대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국가 정책과 법률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논의되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법률과 사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기르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비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의 학업과 활동에 집중하느라 봉사활동에 완전한 열정을 쏟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다음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이번 법률연맹 봉사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배움과 성장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단국대학교 이 준 혜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으로서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과 언론, 그리고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비롯하여 판결문리서치, 국정감사 등 저 혼자라면 쉽게 할 수 없을 다양한 경험들이 제공되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보고 여기라던 나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법과 정치를 넘나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을 보고 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인 정치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

되어 주저없이 지원하였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계획했던 것 만큼 많은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여 끝나는 이 시점에서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했던 봉사활동이 저에게 매우 굵직하고 메리트있는 기억으로 남게되어 매우 의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을학기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법정모니터링을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서울시청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국정감사장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했던 활동으로, 그 당시에도 지금도 저에게 잊지 못할 기회이자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국가의 중대한 일을 도맡아 하시는 많은 귀한 분들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음에 마음이 설레었고 실제 그 현장 분위기는 상상했던 것 보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던 것 보다 훨씬 생동감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국정감사를 온라인으로 보면서 스킵하고 싶은 부분은 얼마든지 스킵하며 제가 보고싶은 부분만 보게 되는 편향적인 시청이 이루어졌었는데, 스킵 없이 장차 10시간의 여야의 모든 발언과 안건을 듣고 접하면서 보다 배움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10시간을 앉아 국정감사를 지켜본다는 것이 처음에는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으나 어느새 저도

모르게 폭 빠져 지루함이란 느끼지 못한채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

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었을 값지고도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나라가 운영되는 과정을 눈 앞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날 행안부에서 이어 진행되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는 새벽 시간까지 진행되어 현장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볼 수 없었던 점이 아직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장 모니터링을 마무리 짓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평소에 제가 가장 문외한인 분야인 '국방'에 대해 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그리하여 국방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내용과 용어, 그리고 정책들 투성이었고 대략 9시간의 영상을 시청하고 일일이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도 긴 여정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우리나라 국방의 주요 사안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있는지, 군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과정이 길고 길었지만 투자했던 시간만큼 기억에도 남고 의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필수였던 국정감사 활동을 한 후에는 여러 선택 활동 중 어느것을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었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기에 선택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제가 마침내 고른 활동은 '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법과 관련된 진로를 꿈꾼다면 그 마지막엔 법정에서 제가 누군가를 변호하거나 누군가의 죄를 밝히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였고, 그 꿈의 장인,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의 과정을 방청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흥미롭게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방청 경험은 이전에 한 번 있었는데, 유명인의 재판을 신청하고 방청하는 것이었으나 대략 5분도 안되어 끝났던 아쉬움이 있었고 오히려 주목을 받는 재판보다 일상에서 진행되는, 정말 현실적이고도 사실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적인 재판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현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몇 개의 길게 진행되었던 사건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5분에서 길어야 10분 이내로 끝나면서 하루에도 이렇게나 많은 사건이,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생각보다 변호인과 검사가 조용하다는 것도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긴장감은 없이 차분하게 정말 말로만 진행되는 재판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심이 되었고,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도 한 번 더 몸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위원으로 가을을 보냈던 덕분에 저는 평소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가치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며 저의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 ○ 한양대학교 이 ○ 현

대학에서 4년간 법 공부를 해왔는데 실제로 관련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어 아쉬워하던 찰나 동기들에게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활동이 번역 봉사, 판결문리서치, 법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국정감사 모니터링으로 크게 다섯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봉사 참여자들이 자기가 관심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봉사를 선택할 수 있어서 더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법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판결문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 위주로 봉사활동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다보니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나니 봉사 이외에 해야할 것들과 일정이 잘 맞지 않아 시간에 쫓겨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는 일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원래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을, 특히 직접 법정에 방문에 진행되는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아쉬움과는 별개로, 제가 한 판결문리서치와 국정감사모니터링은 값진 경험이라 하고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에서 10월 22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와

10월 2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등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사실 원래도 국정감사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한번도 그것에 관심 가져본 적이 없었고 제가 그것을 볼 것이라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도 가장 처음 든 감상은 국정감사 하나하나 모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 진행하는구나 하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또한 평소 뉴스를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알고만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들을 국회의원들이 준비한 자료들과 함께 감사대상에게 하는 질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완료한 후에는 실제로 뉴스를 보며 관련된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어 참으로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역시 관심 있던 분야의 국정감사여서 그런지 정리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주요 문제로 다루어졌던 신속 재판 등의 문제는 학교에서 형사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며 연관지어 작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에 굉장히 큰 관심이 생겼고 다른 국정감사 및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도 모두 관심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의 경우 2020도129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문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위한 판결문들을 알아보다 해당 판결문을 발견하였고 사실 이미 뉴스를 통해 해당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2020도12920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간략하게만 알고 있던 사건의 판결문을 실제로 읽어 보는데 신기했고 단 한 번도 판결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보았던 적이 없어 처음해보는 활동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매기도 했지만 리서치를 끝낸 후에는 뿌듯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법률연맹 봉사활동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웠던 부분들도 생각나지만, 너무나도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역시 다양한 지식을 새로 얻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 열심히 많은 판결문을 정리하고, 법정에 직접 방문하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이 ○ 림  
국민의 의무와 지식

지난 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껴 이번 학기에도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동안 제가 신청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과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적어 처음에는 활동에 대해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한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표를 통해 일반 국민인 제가 국정감사를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의사 중계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신청한 기관은 행안위와 문체부였습니다. 행안위의 경우에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과 관련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위원별로 모든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 후속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슈와 연관되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고 정치적인 내용과 연관된 주제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직접 평가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국민으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국정감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고 또 중간중간 질의가

끊이거나 방해가 있어 모니터링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두 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국정감사의 방식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에 익숙해질 수 있어 의미가 컸던 활동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경우 이번 학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한 번의 활동밖에 하지 못했지만 의미가 컸던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학기 여러 번의 리서치 활동 경험과 이번 학기에 법학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관련 지식을 알고 난 후 활동을 해보니 지난 학기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읽는데도 이해가 빨랐고 사실관계나 쟁점들을 파악해 어떤 법률적 근거를 통해 그러한 쟁점이 판결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판사였다면 어떤 추론 과정을 통해 이런 판결에 도달할 수 있었을 지 생각해보면서 법학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국정에 참여하여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 같아 그 의미가 아주 컸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법학지식을 현실의 사건과 연관지어 법조인의 자세와 시각을 길러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 늘

지난학기 봉사활동 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법과 관련된 활동을 찾기 힘들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업과 병행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안 해봤던 활동을 위주로 봉사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입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하니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정리하며 중요한 이슈들을 직접 찾아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번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전공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의 질의를 잘 알아들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일일이 검색하며 모니터링했고 모르는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뒤 질의 내용을 들으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는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해서 정무위원회보다 어려웠지만, 핵심 사건 두세 개를 위주로 진행되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두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니, 국회의원들이 공들여 자료를 준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치'하면 서로 싸우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국정감사에서는 여야할 거 없이 국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 좋은 질의였으면 칭찬하는 분위기여서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모니터링처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감사 대상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했다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지적인 사항이 시정되는지 등을 감시하는 것이 모니터링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발전하는 국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 번역 봉사도 했습니다. 짐바브웨의 식민지 역사에 대해 알고, 그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찾아본 뒤,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번역했던 부분이 자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자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인종, 종교 등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must와 can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두 단어의 정도 차이에 법을 제정한 사람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명확히 쓰이지 않는 법은 오히려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번역에 임했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가 있으면 철저히 검색해보고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가 아니었으면 못 해봤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봉사활동은 법의 가치와 법

조인이 되기 위한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 충북대학교 이 ○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모두 처음 접하는 일이었기에 많은 걱정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활동에 참여해보니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경험과 배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질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 법률의 실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니터링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가장 뜻 깊었던 활동 중 하나로,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자세히 읽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와 복잡한 논리가 어려웠지만, 이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역시 매우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사법의 현실과 법심리학적 내용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인, 검사, 판사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고, 이를 통해 제 꿈인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다짐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과 사법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한동대학교 이 ○ 진

어렸을 적 저의 적성을 잘 파악하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판사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바라본 판사는 너무나 멋진 직업이었습니다. 이후 제 장래희망은 판사가 되었고 학창 시절 내내 대부분의 기간 동안 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진학하면서 판사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어렸을 적의 꿈은 뒤편으로 제쳐두었습니다. 그렇게 공학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면서도 법률가에 대한 미련이 남아 변리사의 꿈을 꾸게 되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인생의 큰 고비를 넘으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어렸을 적의 꿈을 꺼내어 다시 한번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되어 이번 가을학기 자원봉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저는 부푼 마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이 하는 일과 사법, 입법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필수활동인 국정감사와 번역, 법정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이번 학기 봉사활동의 필수활동은 국정감사라고 하길래 겁이 났습니다. 국정감사라는 단어 자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일은 그들만의 일일 뿐이라고 치부했는데 그들의 일을 지켜보고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2024년 10월 11일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024년 10월 14일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던 경험은 행정과 사법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0월 11일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대상에게 질문하는 것 보단 상대 당을 비난하기에 바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에 대해 깊은 시름마저 생겼습니다. 하지만 경찰국장도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하는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월 14일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성평등과 양성평등 사이의 이슈를 질문하며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하는 듯한 국회의원의 질의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국정감사 중간에 소리를 질러서 진행에 방해가 되게 하는 의원의 태도 또한 매우 별로였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용어를 고칠 것을 제의하고 여러 녹취록과 사진들을 준비하여 타당한 근거로 주장과 반박을 하며 뉴스 보도 등을 제시하여 사실이 아니며 부인하던 증인이 좌절하는 모습을 나타내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제가 기록한 내용들이 실제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짐바브웨 헌법 번역 봉사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짐바브웨 헌법의 인권 조항,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분석하며 한국 헌법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비슷하면서 완전히 동일하진 않은 법조문을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들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각 나라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다르거나 비슷하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저에게 가장 흥미로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법조인들이 실제로 일하는 곳에 가서 그들의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원고, 피고, 피고인, 증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 설명해주는지 확인하였고, 검사는 증인과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와 법정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지도 모니터링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법정이 단순한 분쟁 해결의 장을 넘어 정의 실현의 핵심적인 공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활동은 저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와 헌법 번역 그리고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의 공부와 그 이후의 활동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다짐했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동국대학교 임 ○ 늘

2024년 10월 8일,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국가의 핵심 정책과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공

지능(AI) 윤리와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과 개인 정보 보호의 균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 기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오작동 사례와 데이터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된 국방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드러난 국방 체계의 허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군사적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의제를 다룬 사례였습니다. 특히, 무인기 방어 시스템 구축과 드론 기술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병사들의 복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는 점에서, 국방 정책이 단순히 군사적 강화를 넘어 국민과 군인의 삶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국정감사가 단순히 정책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하며, 정책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은 저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낯설었던 국방 분야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을 접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제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 ○ 중앙대학교 장 ○ 린

약 3달 간의 2024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국정감사 실시간 모니터링과 법률 봉사를 진행하였다. 공식적인 봉사 활동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 방청, 판결문 리서치도 진행하면서 법과 관련한 실질적인 경험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봉사활동과 일련의 경험을 쌓기 전 법과 정치 분야에 대한 나의 참여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회의적이었다. 법과 정치에 문외한인 눈으로 관련한 사회 현상을 관망하고 피상적인 비판을 반복할 정도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법과 원칙을 잘 지키며 긍정적인 가치들을 지향하는 태도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보고 듣고 기록을 남겼다. 태도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지향해온 긍정적인 가치를 행위를 통해 구현해나가 고자 하였다.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는 개인적인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나에게 본 활동은 태도를 행위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이자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봉사활동의 시작은 국정감사 실시간 모니터링이었다. 학부 시절에도 꾸준히 국정감사에 등장한 이슈를 검토하고 관심이 있던 분야의 동향을 확인하곤 하였다. 본 활동은 그와 다르게 선택한 국정감사 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해 정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늦으면 오후 12시가 넘도록 진행된 질의를 실시간으로 보고 정리하였다. 여러 분야의 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다. 평소 관심있는 주제의 위원회와 그렇지 않은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각각 고려하여 택하였는데 사회적 이슈와 그 밖의 논란에 대해 편향된 관심사에 균형을 맞추고자 함이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위원회에 국회의원은 여러 전문지식과 용

어들을 사용하여 모니터링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검색을 활용하여 이를 최대한 숙지하여 보고서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다. 1차 질의부터 시작하여 2차 질의, 보충 질의, 의사진행 발언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질의가 구체화되고, 피상적인 피감기관장의 답변이 명확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질의를 위해 많은 사전조사와 검토가 진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언론을 통해 격양된 목소리와 비난이 오가는 짧은 영상에 익숙한 대중에게는 가려졌던 의원들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반영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정책을 구현하는 국가기관 및 조직의 구성과 각각의 역할을 파악하여 국가 운영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어 정책과 개인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다.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남은 기간은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는 법률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짐바브웨와 잠비아라는 나라의 헌법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고 각 나라의 사회문화, 정치경제적인 배경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 공부해본 적이 있고 어떤 가치와 개념이 언어로 구체화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적절한 용어와 개념을 찾아 번역하고 비교해볼 수 있었다. 법의 적용에 앞서 법률에 대한 해석에 혼선이 생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하나도 소홀히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특히 헌법은 각 나라들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도 국가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 가장 기초적이고 중대한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가치가 상통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헌법 번역이라는 활동을 통해 단순한 언어의 전환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짧은 봉사활동 기간에서 가능하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태도가 아닌 행위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국가 운영을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장 등의 질의를 통해 검토 및 판단하고, 다른 나라의 헌법을 우리말로 번역하며 국경을 초월한 기본적인 가치를 되새기고 혼란을 막는 용어의 올바른 선택과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궁극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정의 등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변화하고 있는지는 꾸준히 살피고 목소리를 내고 검토해야 하는 행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봉사활동은 꾸준하고 적극적인 봉사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를 견지하고 싶다.

### ○ 성신여자대학교 장 ○ 린

이번 가을학기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뜻 깊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유익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을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며, 현재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어떤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았다면 국정감사 후 기사로 요약된 것만 접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국정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뉴스나 기사를 접하니 사회적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했다면 또 색다른 경험이 되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지 않아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잠비아 헌법 해석을 맡게 되었는데, 이색적인 경험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른 국가의 헌법들도 번역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법이다 보니 파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석하기 조금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감을 잡고 즐겁게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잠비아 헌법 일부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도 많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에서 학습한 헌법 내용도 정리하고 적용해보며 잠비아 헌법을 더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헌법을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큰 흥미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헌법에 대해 다시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학기에 원하던 만큼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쉽게 할 수 없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법정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매번 공부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 판례들을 접하는데,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가을학기 봉사를 통해 저의 진로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어 유의미한 2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 ○ 계명대학교 장 ○ 정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될만한 대외활동을 찾아보던 중 소비자법률연맹에서 법률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참여한 2024 가을학기 봉사 활동의 주된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다. 한 번도 국정감사 영상을 시청해 본 적이 없던 나에는 굉장히 생소한 활동이었다. 처음 영상을 볼 때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단어를 못 알아들어 검색을 여러 번 했던 적도 있었다. 보고서에 국정감사의 내용을 정리해야 하다 보니 의원들의 말을 다 받아 적는 것이 너무 힘들기도 했다. 감사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0시간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끝나고 얻은 것도 있었다. 예전에는 뉴스에서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 국정감사를 시청하고 나니 알게 된 내용이 많아져서 이해하기 편해졌다. 그리고 국민이 알게 모르게 피감사 단체가 뒤에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법률봉사 활동에 대해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 주된 활동이라서 법정모니터링을 많이 하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적은 경험을 통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재판에도 나갈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미래 법조인으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꿈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 ○ 중앙대학교 전 ○ 란

2024년 세 번째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은 국정감사 기간과 겹쳐 감사하게도 특별히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은 의원들의 발언 내용과 시간, 태도를 정리해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세 개 위원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에 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국토균형발전, 전관 카르텔, 용산어린이정원, 주거안정이 국정감사의 키워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등장하던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공급 격차문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토양오염 문제까지 시급한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전청약 후 본청약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해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밖에도 썩크홀 사건과 건설 노동자의 현장복지를 다룬 국토안전관리원, 현실적인 주거복지사의 할당량을 다룬 주택관리공단(주) 등 사회 각층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담은 예리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군사법원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채상병 사건과 군내 마약, 도박 범죄, 군범죄 피해자 및 유족 보호, 국방부 질타, 군법무관 기피 문제 등 주로 언론에서 크게 이슈된 사건에 대한 질의가 많았고, 국방부장관과의 언쟁이 크게 오가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50만 군인이 보고 있으니 말을 조심해 달라'란 말을 하자,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5천만 국민을 대표한다'며 되레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정치적 쟁점은 채상병 사건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를 부정하고 관련 특검을 진행하고자 하는 야당과 그에 반하는 여당의 반목, 방어적으로 답변하는 관련인들의 태도가

합쳐져 군사법원이 고성과 비아냥으로 채워졌으나, 위원장의 적절한 중재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종합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사건,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적격 여부와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 및 배달 수수료 상한, 전 권익위장 사망 관련 의혹, 중국산 IP를 통한 국내 개인 정보 해킹 등 굵직한 주제에 대한 열띤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광복회 회장 이종산 증인이 역사왜곡 사태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유명하 의원을 '당신'이라고 지칭하자, 같은 여당인 강민국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유명하 의원이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배려와 이해로 훈훈하게 상황을 마무리한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반목하는 입장을 가진 여당에서 증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국정감사장을 단순히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정쟁의 장보다 건설적인 논의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니터링 활동은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기록이 추가 되었습니다. 의원이 피감기관 정책의 문제나 부정비리,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지, 이전 국정감사 때로부터 시정조치가 있었는지, 질의의 내용이 시의성 있고 근거 자료를 공개했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질의 및 감사 매너, 국감 방해 원인 제공 등 태도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는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오프라인 모니터링 활동 때만 진행하는 출석 이석 현황표 작성이었습니. 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의원이 있는 반면, 자신의 질문만 하고 밖으로 나가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빈번히 자리를 비운 의원은, 아무리 그 질의 내용이 예리한들 국회의원의 소임에 충실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더욱 성실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활동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활동에 참여하기 전, "국정감사는 다음 선거를 위해 소리치는 정쟁의 장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물론 정치적 쟁점이 포함된 주제, 특히 1차 질의 중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막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질의가 진행될수록, 정정보다는 민생의 장에 가까워졌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어플을 사용해보면서 나온 깊이 있는 질의는 때로는 예리하게 허점을 찌르고, 때로는 감동적인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정말 관심이 필요한 사회 소외 계층,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질의와 "주기적으로 의원실에 보고해달라"며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것을 밝히는 국회의원의 경고성 말은 우리 국가가 '국정감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위원장들은 역시 직위의 무게감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질의를 하고 의석을 정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장 특히 의원들의 정책 제안과 훈수에서 사안에 대한 진심이 보였습니다.

앞선 두 학기의 활동을 통해 직접 판례와 재판을 살펴보고 사법 체계 시스템을 경험했다면, 이번 학기 활동을 통해서 법의 사각지대와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발견하는 국정 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며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입법과 사법의 연결고리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 ○ 고려대학교 정 ○ 은

법률소비자연맹의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우리의 사회 속 정치적 또는 법적 문제 및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에 더욱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2024년도 필수활동은 국회의원 국정모니터링 활동이었고, 그 외에도 해외 법제 번역 봉사활동과 사법감시-판례문리 서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가을학기의 경우 22대 국회의원의 국정모니터링 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은 하반기 정부 기관의 국정감사

기간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봉사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선택하여 각 위원들의 활동을 확인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재 관련 피감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정리하며 현재 정부의 현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면서 각 위원들의 전문성과 충실성, 문제 접근 방향성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국정 활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었으며, 또한 피감기관인 정부 기관의 답변을 확인하며 현재 국정 운영의 방향성 등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법제 번역 봉사활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의 경우 예멘 헌법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문서였기에 더욱 흥미로웠고, 예멘 헌법의 특징, 사회 배경 등을 익힐 수 있었기에 유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배움뿐 아니라 해외의 법학 용어, 문화 등을 폭넓게 알 수 있는 활동이었고 이는 차후 국제적인 법률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튼튼한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례 분석 활동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중요 또는 이슈 중심의 판례를 선택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1심, 2심 판례를 함께 조사하면서 사건을 보다 세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본 활동의 목표였기에 사건의 쟁점 및 사실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관계의 사건을 이해하는 눈을 키울 수 있었고, 법리의 적용과 법률 용어 등을 익히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차기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판례를 조사하고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24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분야에서의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강의나 책

에서 배우는 내용 이상으로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활동이나마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고려대학교 정 ○ 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매우 뜻깊고 도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만을 진행하였는데,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의 주요한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정리하고, 그들이 어떤 취지의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질문 태도는 어떠한지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면모와 국정감사의 실제 운영 방식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몇몇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어떤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자료에 기반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정감사가 정책 개선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국회의원들은 불필요한 발언이나 시간 끌기를 통해 국정감사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명백히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결과물을 양비론적으로 접근하는 일부 의견들이 국정감사 중간보고서에 반영되는 것

을 보며 큰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작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에게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본래 취지인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동시에 그 한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물이 편향되거나 부주의하게 작성될 경우, 그 결과는 국정감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보고서의 작성을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기록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국정감사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 나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 그리고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 ○ 서강대학교 정 ○ 준

나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한다. 이는 곧 법조인이 되고자 함과 같다. 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선망은 있었지만, 정작 법조인이 어떤 방식으로 공익에 기여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법조인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법조인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말함으로써 그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 기회는 많지 않았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에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고, 가을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내가 가졌던 궁금증에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었다.

문체위와 과방위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국회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나는 역사를 전공하기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문체위 국정감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적응하고 관련한 예산을 확충할 것을 감사위원들은 피감기관에 요구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현대사회에서, 한류와 우리 문화의 확산에 있어 민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제도적 지원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깨달았다.

중요 판례들의 쟁점과 판시사항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여러 소송의 형태, 관련 법리, 법원의 판단 근거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언론에도 보도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읽어보면서, 신문 기사에 근거하여 가진 내 생각과 법원의 판단 사이의 괴리를 깨닫고, 이성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단이 어떤 것인지 어렵게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다소 힘들었고, 쟁점을 찾아 나의 방식대로 간추려 정리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렸으나 거듭할수록 능숙해짐을 느끼고, 더 나은 보고서를 쓸 수 있어서 뿌듯했다.

마지막으로 신문 기사를 직접 스크랩하고, 그것을 요약해 언론사별 보도 경향을 직접 분석하는 언론모니터링을 통한 해를 관통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하루하루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끊임없이 소식을 접하긴 하지만, 다른 정보들과 뒤섞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앞의 내용은 희미해지거나 까먹기 일쑤였다. 하지만 언론모니터링을 하면서 수 개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해당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보수 성향의 언론과 진보 성향의 언론 양 측을 모두 조사하며 균형 잡힌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글을 읽었고, 정리했다. 학업과 병행하면서 때로는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뿌듯했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워 갈 수 있었다. 막연하게 동경했던 법조인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공익에 보탬이 되는지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도 어

는 정도 향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서 공공선에 기여하는 좋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조 ○ 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이번 가을 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법과 사회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헌법 번역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활동을 통해 국내외 법률 체계와 정책 실행 과정을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의 관심사를 넓히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분석하며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와 현안을 구체적으로 접하며,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실제 집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공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여 도시 개발, 교통인프라, 주거 정책 등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다뤄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임을 느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업 지원 정책, 수산업 보호, 식량 자급률 문제와 같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 및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각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법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간의 질의응답을 지켜보면서 논의가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었고, 국정 운영의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헌법 번역 활동 또한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베네수엘라 헌법을 배경받아 17페이지 정도 번역하였는데, 번역 작업은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에 담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며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었기에, 이를 번역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학습해야 했습니다. 번역을 진행하면서 베네수엘라의 현재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시각에서 법과 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 봉사를 넘어 제가 속한 사회와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법률 소비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은 단순히 글자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국정감사와 헌법 번역 봉사를 통해 제 법률적 사고와 시야가 한층 넓어졌다고 느낍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률과 정책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반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개인적으로도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

### ○ 연세대학교 조 ○ 영

약 세 달간 진행한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대학생 봉사활동을 마치며, 먼저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권리이자 의무를 실현하게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저번 봄학기 봉사활동 당시 신청은 해놓고 봉사 30시간을 채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중도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을학기에는 제대로 완수해보고 싶

는 목표 하에 학기 중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저의 본전공을 살려 법률 번역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두루 하진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해당 봉사는 저에게 무형의 동력을 제공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끄럽지만 단 한번도 국정감사를 국민으로서 살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회의 기본적인 운영방식 등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주권을 위임한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선택했던 과방위(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대검찰청)의 국정감사는 최근 논란이 가장 뜨거운 정부와 정부의 비민주적 언론통제와 직권남용 이슈를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차례의 국정감사는 각각 8시간과 11시간이라는 아주 긴 러닝타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온라인으로 보면서 각 의원의 발언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두 차례의 국정감사만 하였는데도 28시간이 소요될 정도였습니다. 압도적인 소요시간에 의욕을 잃고 대항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였는데, 하다 보니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민,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과거의 제 생각을 바로 회회하게 되더군요.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 이후에도 제가 모니터링하였던 이슈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상황에서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저에게 준 영향이 정말 컸기 때문에 로스쿨 입시가 끝나는 내년에도 가을학기엔 꼭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현장에서 하거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법률번역 봉사는 독일의 변호사보수법 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쉬운 편은 영어로 진행되는 짐바브웨 헌법일 것 같았으나 이왕 번역 봉사를 진행할 때 평소 법학을 공부하며 체득하였던 독일법체계와 그 법률용어를 실제로 활용해보자 다짐하고 독일어 번역을 시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렵고 국정감사모니터링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하나하나 단어를 독일법률용어사전에서 검색하여 찾아보며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며 적어나가니 보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인터넷 어디에도 잘 나오지 않는 독일 변호사보수법을 제가 한땀한땀 번역해간다는 그 희열 또한 잊지 못할 듯 합니다. 제 결과물이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봉사활동 소감문만 봐도 제가 얼마나 이 봉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었는지 느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겨울학기에도, 내년에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대학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 ○ 고려대학교 조 ○ 서

여름학기에는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해보고자 가을학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이번 학기 처음 도전한 활동으로, 어렵고 생소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운 과정이었습니다.

가을학기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사실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국정감사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었습니다. 대개 짧게 편집된, 화제가 된 몇몇 국정감사 장면을 접했을 뿐, 전체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약 9시간의 국정감사 영상을 보고, 감사위원별 발언과 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국정감사는 제 생각보다는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장의 질행 아래 여러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 질의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자료와 시각자료가 제공되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피감기관장의 업

무 태도나 국정감사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증인이 나와 발언하고, 위원장이 피감기관장에게 추가로 질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실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속 정당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질의하는 내용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후반부에는 각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각 국회의원이 진심으로 궁금한 점이나 감시하고 싶은 부분을 질의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정당에 따라 질문의 분야가 고정돼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포함한 국정감사에 대한 감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 국감위원의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모르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질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과 사건이 해당 질문으로 이어졌는지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감위원의 발언을 듣고 관련 사건을 검색해 이해한 뒤, 다시 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용이 복잡해 어려웠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국정감사 내내 반복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해두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혹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앞두고 있다면, 번거롭더라도 미리 주요 사건들을 공부하고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국정감사와 헌법 등을 다루면서 각 정부 부처와 이를 감시하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작성한 자료들이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노력하고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 ○ 동국대학교 조 ○ 연

이번에 참여한 온라인 국정감사모니터링 봉사활동은 매우 뜻깊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인데, 그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국가 운영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인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접할 수 있었고, 이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정감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개념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이해가 깊어지고, 다양한 논의와 이슈들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이 경험이 정말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다루진 다양한 이슈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1그램 계약'과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점'이었습니다. 이 두 사안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 더욱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1그램 계약은 특정 기업과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이 계약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단순히 기업과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과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점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문제였고, 그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주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국제정세와 GDP 성장률에 관한 문제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루지는 방식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변화나 경제적 위기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논의는 특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논의를 이끌어가는지를 보고, 국정감사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의

장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바로 그 절차와 방식입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국정감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의 과정에서 각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정책이 수립되고 수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의원님들의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각 의원님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고민하며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때로는 강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우리나라의 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려는 진지한 자세와 책임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모습은 제가 앞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런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국정감사의 중요성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국정감사와 같은 과정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제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들의 열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 서강대학교 조 ○ 원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조항은 노래로도 제작되어 대부분의 국민에게 친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헌법 조항은 우리에게 마치 공기처럼 익숙해서 그 헌법 조항이 담고 있는 깊은 함의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 바쁘게 흘러가는 생활에 지쳐 사회현안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더군다나 정치에 관련한 이슈에 관해서는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정치사회 문제를 외면하고 있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가지 봉사활동 분야를 지원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감사 현장/온라인 모니터링 봉사활동이고, 두 번째는 해외 헌법 번역 봉사활동입니다. 저는 본전공이 정치외교학과이기 때문에 매년 10월 정기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활약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 장면을 편집한 짧은 영상은 본적이었지만 이렇게 장장 10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를 직접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각각의 의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몇가지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부처의 장관과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국민을 대표하여 예산 문제, 공무원의 비리문제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R&D 예산삭감 정책에 대해서 절차적 위법성, 내용의 위법성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정책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위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대재해법 위반과 환경범죄죄 문제삼는 장면을 통해서 대기업의 고문또한 법 앞에서는 평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번역봉사 활동의 주제는 해외헌법을 번역하는 것이었고, 제가 맡은 나라는 바로 짐바브웨라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이거나 친숙한 나라는 아니기에 번역을 하면서 명칭 등이 애매해서 난감한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아주 먼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명시된 법원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번역 부분에서는 재판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매우 강조되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수호되어야 할 가치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의 소비자인 국민 한명 한명이 민주주의, 정치를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헌법에 쓰여있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 없을지도 모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가 그토록 지키려했던 민주주의 정치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더욱더 민주적 정치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소감을 마칩니다.

### ○ 서울대학교 진 ○ 아

처음에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모니터링 활동이나 리서치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번의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2번의 판결문 리서치는 하나하나가 나에게 깨달음을 준 활동들이었다.

첫째, 정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면밀히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삼권분립이 잘 실현되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국정감사가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을 모니터링하는 일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국정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정치적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둘째,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재판의 논리를 배우고 사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이해하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자세하게 읽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읽어본 적은 있었으나 민사와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특히 법률연맹에서 제공하는 쟁점, 원고 주장, 피고 주장, 근거를 정리한 표와 핵심 문장 표시 형식은 논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간단한 형식이지만 형식에 맞춰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판결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1, 2, 3심 판결문을 리서치하며 재판마다 똑같은 사건과 증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판결이 어떤 법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놀라웠던 점은 같은 사건과 증거를 두고 1, 2, 3심에서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고, 유무죄가 달라지는 판결에서도 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명백히 옳다고 생각했으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읽으며 설득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타당한 처벌을 위해 검사와 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법적 사고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 많은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을 읽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뿐만 아니라 이번에 해보지 못한 법정 모니터링이나 번역활동, 의정활동에도 참여하며 국가기관의 사법, 입법 활동에 대해 배우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 ○ 고려대학교 채 ○ 민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저는 두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이고, 둘째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은 제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한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군사법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맡은 당시, 국방부와 군사법원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열띤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들으며 저는 밖에서 뉴스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직접 현장에서 국정감사의 현장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고 또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어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준비해왔는지를 제가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감시한다는 생각을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한 활동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감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기술 및 방송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논의와 질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과학기술과 통신 분야에서의 법적 규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법과 정책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고 변화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법률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적·정책적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향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하며,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시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법적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법률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며, 법률적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같은 중요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이화여자대학교 최 ○ 현

대학에 다니면서 부끄럽지만, 번역 봉사 외에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해보지는 못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까지 세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다른 의미로 의미가 있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며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뉴스나 단편 기사가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그중 하나는 뉴스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다룬 위원회였는데 그 사안에 대해 남의 입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민이 국정 수행 과정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안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

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이번에 법정 모니터링을 하러 처음 법원에 가봤는데 법원에 가기 전에는 막연

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컸다. 법정 모니터링을 한 서울동부 지방법원은 방청하러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법원인지 판사님께서 방청하러 온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만큼 재판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미디어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하나의 사건이 재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은 매우 짧아서 놀라는 한편, 진행은 빠르면서도 하나하나의 사건에 쓰이는 서류의 양이 무척 많이 더욱 놀랐다.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에 형사재판을 먼저 본 후, 민사재판을 방청했는데 민사재판은 형사재판보다도 빨리 변호인들과 판사만의 소통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흐름을 따라잡기 조금 어려웠다. 진행되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재판 당사자에게 상황을 설명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웠다. 그래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 덕분에 재판 현장을 방청할 수 있었고, 그 세부 내용까지 공부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어쩌면 이번 학기 봉사활동 기간 중 가장 많이 배운 봉사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판결문을 볼 일은 거의 없고, 1심, 2심, 3심까지 사건 하나를 파헤쳐볼 일은 더더욱 없으므로 사법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검사가 어떤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는지, 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박하며 판사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에 비해 이해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 사건은 민사 사건으로 정한 것은 잘한 선택인 것 같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며 본 사건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었고, 형사 사건과도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각 사건에 매겨진 사건번호를 보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실감할 수 있었고,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많은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었다.

꿈이라고는 하지만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 미디어에서 접한 것 이상으로는 거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봉사활동이었고,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더욱 법과 재판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 과정을 알아갈 수 있어서 누군가 법조인이 되는 것을 꿈꾼다면 꼭 한 번쯤은 해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은 활동이었다.

### ○ 중앙대학교 최 ○ 안

이전에 두번의 활동을 거치면서 큰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2024 학년도 가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재차 신청하게 되었다. 작년에 비해서 행정법, 국제법 등 다른 법 과목들에 대해 수강을 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하었기에 더욱 알차게 교과 공부와 더불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저번 활동과 더불어 법률 용어를 영어로 접할 수 있는 번역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번역봉사활동의 경우 각국의 헌법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각국의 헌법의 기원과 그 내용을 번역해보며 한국의 헌법의 내용과도 비교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의 헌법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 뿐 타국의 헌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헌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이번 학기에 새로 접해본 행정법에 대한 판결문을 다루어 보았다. 이론을 배운 뒤 사례로 몇 개의 판례를 살펴보는 했지만 직접 행정법과 관련한 판례를 다루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판례를 다루었는데, 이전학기에 학습했던 세법과 더불어 조세와 관련한 판결의 특성상 행정법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심판 및 행정판결의 절차적인 측면들을 알아야 했기에 이번 판결문 리서치가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행정법을 수강하면서 행정심판 및 판결의 절차들을 알게 되고,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었다.

필수활동이었던 국정감사모니터링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우리나라의 현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자세히는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관심있는 부서의 국정감사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상호감시체제의 중요성을 느

낄 수 있었다. 특히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은 상공론에 불과하기에 직접 민생과 맞닿아 있는 기관들의 장에게 현재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구하여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 동국대학교 최 ○ 형

주요 봉사활동 내용

나는 이번 봉사활동으로서 '2024년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일본 재판소법(裁判所法) 번역'의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우선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올해 있었던 여러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 중에서 2개를 골라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당해 의원들의 행적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나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상임위)가 각각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피감기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번역 봉사로는 일본 재판소법을 번역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외 법률의 경우 국회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이미 다수의 번역판이 나와 있기는 하나, 이들은 매년 최신 법률 개정까지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현행 조문을 알아보는 데 활용하기에는 곤란함이 있다. 나는 가장 현재 시행 중인 재판소법(令和 5년 시행)을 번역하였다.

봉사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내가 스스로 신청한 첫 봉사활동이었다. 신청 당시에는 단순히 학점을 받고 봉사활동 이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바라보는 등, 신청에 있어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 그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 학기 중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와중에도 시험기간과 봉사 일정이 겹치거나 타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체력적으로 지쳐 억지로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봉사시간을 모두 채운 뒤 어느 날 우연히 한 기사가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의 국회의원 평가를 다룬 것을 보고, 이 활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하였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특히 번역 봉사의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나의 일본어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어 봉사 내내 즐거웠음은 물론,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다.

봉사활동 기간 중 발견한 자신의 장단점

이번 학기는 사회봉사를 비롯하여, 여러 다양한 외부활동을 수행한 바쁜 기간이었다. 이에 초반에는 많은 업무량에 치여 포기를 잠시 고민하였지만,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결국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였던 이유는 내가 하루의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있으므로, 앞으로 점점 더 바빠질 내일에는 나의 하루에 내가 책임을 지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획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이 닦쳐야 비로소 움직이는 습관(단점)을 버리고, 나의 장점인 책임감을 살려 자기 전 현실적인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다음 날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봉사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

이번 봉사활동은 결론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학과를 전공하는 나로서는 국정감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요 피감기관들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등을 직접 목격하면서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필요성 및 기능을 복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또한 개강 무렵에 바쁘다는 이유로 일본어 공부를 멀리하고 있었는데, 일본 법률을 번역하면서 자연스레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고 나아가 해석에 있어 큰 공부가 되었다. 이처럼 나는 봉사활동을 학교 밖에서의 또 다른 공부로 활용하였고, 무엇보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느끼면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향후 봉사활동 계획

힘들 줄만 알았던 봉사활동을 마치고 난 현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번 봉사활동은 정말 잘 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여기면서 해나가면 즐겁기까지 하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나는 남은 학부과정 정규학과와 계절 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 중 특히 즐겁게 수행한 번역 봉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할 의향이 있다.

### ○ 광운대학교 최 ○ 진

9월 오티 회신문을 시작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두 차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거쳐 판결문 리서치 활동까지 총 35시간의 봉사를 마쳤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함께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봉사가 아니었다면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는 나로서는 절대 접하지 않았을 생소한 활동이었다.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흥미롭게 국정감사 영상을 전체 시청했다. 알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질의자들이 언급하고 이에 대해 관련 자가 대답하는 형식의 국정감사는 생각보다 엄청난 집중력을 불러일으켰다. 지루할 틈 없이 평소 내가 얼마나 사회 문제에 무지했는지,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생으로서 관심 가져야 할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는 기회였다. 비록 국정감사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에 따라 치우쳐진 접근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원들이 언급하는 문제들은 부인할 수 없는 실재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현상일뿐이라고 얼버무리기보다는 민주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다 같이 해결하는 태도를 민주시민으로서 배웠다. 나의 권리를 일부 위임했을지라도, 여전히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시민이 되고자 다짐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정감사는 기술적인 면을 다루어, 더욱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종종 r&d 예산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는 했지만, 현장에서 본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진귀한 활동이 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의원들의 질의 외에 태도에 대해서도 살폈는데, 국정감사 또한 정치의 연장선 기능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관이나 대법관 등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피감대상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다소 공격적인 질의를 받는다고 느껴졌다. 질의에 따른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거나, 단순히 질타하기 위한 발언을 하는 등 당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간간히 보여 얼굴이 썩그러지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국가 운영 균형을 위해서는 여야 의원 간의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정감사 중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임은 부정하지 않는다.

판결문 리서치는 학부에서도 자주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모니터링만큼의 신선함을 없었다. 그러나 학부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으로, 뜻깊었다. 특히 법대생들이 어려워하는 담보물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했는데, 이 또한 나에게는 도전이었다. 가장 어렵고 꺼려던 분야의 판례를 도전적으로 신청했고, 판례를 읽으면서 후회를 하기도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판례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보고서 작성하면서 다시 복기했다. 더욱 방대하고 구체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한 판례이기에 학부 공부를 복습하기에 좋은 판례였다. 아직 전공을 살려 실무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항상 전공 실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 공부했던 내용을 직접 사용하고, 적용하는 행위를 하면서 나름 뿌듯함을 느껴졌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사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참여했지만, 봉사활동을 직접 하면서 그 어떤 봉사보다도 법률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공을 활용해서 일정 도움이 될 수 있었기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봉사에 참여했던 것 같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기로 다짐했다.

### ○ 이화여자대학교 최 ○ 아

지인의 추천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우연히 알게 되어 2024년도 가을학기부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때도 법률연맹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법률소비자 활동의 기회들을 막연하게 찾고 있었는데, 그때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고 모른 채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무척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정을 다해 해보자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중 가장 먼저 참여한 것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수 활동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골라서 했을 활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개최부터 폐회까지 빠짐없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 활동의 중요성도 알 수 있었기에 보람있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국정감사를 다 보지 않고 뉴스 미디어를 통해 편집된 임팩트가 있는 부분만 접하다보니 자극적인 어휘를 쓰는 국회의원이나, 핵심 감사 주제들만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각자 맡은 감사 분야에서 가져온 여러 세부적인 감사 이슈도 들여다 볼 수 있어 국내 이슈들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시간적 순서로 하다보니,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당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청소년 문제나 AI 기술을 악용한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 토론했는데, 자신들의 활동을 은근히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가 진행될수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목소리가 모이는 것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의원은 진심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고심하여 해결책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다른 의원들에게 배부했는데 그런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평가를 할 때 엑셀시트에서 평가항목을 숫자로 표시하는 부분에서, "예산낭비"부분이 편협한 질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잘못 쓴 정황이 보이지 않아서 지적할 필요가 없었거나, 또 오히려 예산이 더 쓰여져야 하는 부분의 문제라면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하기가 애매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한 것은 법정 모니터링입니다. 처음 들어선 법정이 형사 재판부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에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스스로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학생처럼 보이는 저 사람은 사연이 뭐길래 이런 형사 재판부에 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법정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았기에 무사히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던 행정법원에서는 많은 사건들의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대다수의 경우가 난민 신청과 관련된 사건이라,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난민 신청이 꽤 많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것은 통역 봉사입니다. 헌법 번역은 처음인지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 당황했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법이 왜곡되어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적힌 잠비아 헌법을 번역하였는데, 헌법 번역의 경우엔 나라의 기본 정보도 찾아서 넣어야 했기에, 이번 기회에 이 나라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눠준 번역본 예시의 번역 오류들을 발견해 이메일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셔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마치며,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법률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에는 다른 활동도 해보면서 법률소비자로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 중부대학교 최 ○ 준

2024년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여름학과 가을학기를 포함하여 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번 해본 적 있는 봉사활동이어서 활동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가을학기 필수 봉사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 다소 고초를 겪었습니다. 처음 모니터링 해보는 국정감사이기도 했고, 하나의 부처를 감사하는데에도 모니터링 시간만 최소 3~4시간이나 걸렸으며, 기타 보고서 작성 및 부처 현황 등을 작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최소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구글링을 통하여 공부를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해당 국정감사 질의가 무슨 내용에 대한 질의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중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철도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저에게 국산 신호 시스템의 체계 등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어려워 몇 번을 돌려봤는지 셀 수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2회가 필수였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하고 저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선택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오전과 오후로 나뉘는 경우 오전 국정감사와 오후 국정감사 2개 다 해야 모니터링 1회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나마 익숙한 분야인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선택했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경우 재판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나마 익숙한 기관이었으나, 법제처는 조금 생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은 익숙했습니다. 당시에 한창 익숙했던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이나 검찰청법 시행령 관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이 질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도 생각보다 오래걸렸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가 했던 국정감사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린 국정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 자체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비중도 높았고 자료도 많아서 더욱 오래걸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할 당시에는 앞서 기술했던 것처럼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및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에 대한 의혹이 많았고 새로 떠오르는 삼부토건 추가조작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고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끝나고 저는 이번 에도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학기 때부터 시작했던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중에서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은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대법원 선고 2023다276823 판결인 손해배상(기)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제가 판결문 리서치를 신청할 당시에도 아직 비실명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가을학기 봉사활동이 종료되고 나서 판결문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문은 사실관계가 엄청 복잡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법리에 대한 부분이 다소 복잡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2023다276823 판결의 주요 법리는 민법 제3장 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법 제3장 사무관리에 대한 부분의 쟁점은 사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이 어디까지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과 연관되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견련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강의책도 찾아보면서 덕분에 사무관리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이고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도 뜻깊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나는 또 하나의 판결문은 대법원 선고 2023도12580 판결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나는 이 판결은 아무래도 뉴스를 통하여 한 번쯤 접하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결문은 속칭 '라임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뇌물절대' 사건으로 라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쟁점은 술과 접대가 1회에 100만원 이하인지 아닌지 여부였고, 결국 검사 1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이 인정되어 유죄취치 파기환송 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는 청탁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할인가액과 참가자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 가액을 공정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증명책임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에게 있다고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으며 무죄가 나온 적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증거는 완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여서 저의 법감정과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에 남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봉사는 법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법정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청에 처음 가본 기억밖에 없기도 하였고 추가적으로 접연할 사건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번 활동보고서 소감문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열심히 활동하여 수상을 해볼까 고민도 하였으나, 여러 대외활동이 겹쳐 시간 투자하기가 힘들어서 솔직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치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했음에 성취감을 느끼며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어 다시 한 번 뜻깊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 ○ 서강대학교 최 ○ 주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은 평소 친하게 어울리던 같은 학교 선배들을 통해 전해들어 알게 되었다. 같이 봉사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선배들의 말에 고민하기도 잠시,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승낙하였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봉사는 무슨 활동이 있을지 기대를 안고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2024년도 가을학기 봉사의 필수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이었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고, 직접 찾아볼 일이 없어 나오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더군다나 국정감사를 찾아보니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내내 진행되기에 그 시간적 압박감에 부담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단 모니터링을 진행하니 그리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재밌어서 쉽게 들을 수 있었다. 평소 국정감사를 찾아 들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치 상황에 아예 무관한 것도 아니었기에 국회의원의 입에서 각종 의혹, 비판,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 등등을 듣자 점차 몰입하여 듣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 학기 모니터링은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들었는데, 두 위원회 모두 평소 관심 있게 보던 주제를 주로 다루서 더욱 흥미롭기도 했다. 그렇기에 두 감사를 합쳐 약 19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었지만, 힘들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을 통해 직접 우리나라 정치 진행되는 한 장면을 지켜보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뿌듯했다.

다음 봉사 활동은 번역 봉사 활동이었다. 내가 번역을 배정받은 것은 짐바브웨 헌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부분이었다. 조금 더 유연하고 맥락에 맞는 번역을 하기 위해 짐바브웨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조사한 뒤 번역을 시작했다. 굉장히 생소한 나라였기에 우리나라 헌법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는데 적어도 내가 번역한 부분에서는 주요 내용에서 다른 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며 영어 실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법률적인 문서를 번역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많은 걱정을 했지만, 몇 단어를 제외하면 꽤 수월하게 번역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 활동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번역 봉사 모두 처음 진행하는 활동이었다. 국정감사는 이전에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법률 문서는 법률 단어가 번역하기 어려울 것이라 짐작해 마지막까지 신청을 고민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 두 활동 모두 걱정만큼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혼자 지레짐작하여 겁 먹고 도망치지 않고, 일단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배운 점도 많고 성장한 한 학기였다.

### ○ 전주대학교 한 ○ 혁

2024학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세혁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너무나도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번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실 국정감사 현장에 참여해서 국정감사활동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휴대폰으로만 봐왔던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은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했을 때는 느낄 수 없던 생동감과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10월 14일에 방문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여러 국가기관,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고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도'인 만큼 많은 현안들이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상정된 것 같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감사주제는 '북한과 갈등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북반구로부터 날라오는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으로 경기도 북쪽에 위치한 파주

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파주 시장님이 국정감사에 방문하셔서 파주시민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었고 시장님이 말씀은 국정감사를 참여한 인원들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데에는 충분했다. 그 외에도 이재명대표의 일산 대교의 무료화 정책이 실패로 대법원의 원고승소 판결로 실패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님은 일산 대교에서만 돈을 걷는 것은 형평성의 어긋난고 입장을 표명하셨고 여당의원님들은 국민연금의 재원충원을 위해서라도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했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 그리고 코나아이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오고갔다지역화폐가 지역경제살리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전에 핸드폰으로 국정감사를 시청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기 보다는 안건과 관련 없는 정쟁으로만 시간을 보내서 모든 국정감사가 그런 줄만 알았는데, 상대 진영을 존중하고 민생을 위해 현재 문제점에 대한 고민하고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볼 수 있었다.

10월 17일 대전고등법원, 검찰청 국정감사도 흥미로웠다. 10월 17일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무혐의 처분한 날이었다. 국회의원과 검사들에 뜨거운 공방이 오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전반을 평가해야하는 모니터링 위원으로서 긴장감을 가지고 감사장을 들어갔다. 예상대로 국회의원의 말끝은 날카로웠고 국회의원님과 검사님의 첨예한 신경전이 오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와 딸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꼬리물기식의 압수수색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검찰이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건과 달리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위이다', '감사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사했다고 해서 되려 수사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감사의 특수화 동비를 수사에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쟁점으로 감사가 진행되었다. 손가락질을 하는 국회의원님도 계셨는데 솔직히 보기에 좋지않은 안았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다. 그 중요성은 이루어 말 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더욱 더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져야 국회의원도 주어진 권한 내에서 국정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피감기관도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해질 것이다. 평소에 보고 싶은 국회의원님들도 보셔서 너무 좋았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원님들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봐서 매우 좋았다. 기회가 되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한번 더 해보고 싶다.

#### ○ 전북대학교 한 ○ 서

어렸을 때부터 법조계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대학생이 되고 여러 봉사활동을 찾아보다가 학과 선배에게서 추천받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로스쿨 진학을 꿈꾸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이기도 했고, 학교에서 '법'과 관련한 여러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봉사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과 함께 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받고 작성을 하면서 이 봉사활동은 그동안 내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분야와 다른 분야에서의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2024년 추계 봉사활동에서 진행한 활동은 두 가지였다. 국정감사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이다. 그 중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보자면, 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등의 사법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였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어떤 안건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으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영장 발부에 대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아 사전영장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의 사법부에게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다. 두 번째 국정감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YTN의 민영화에 대한 감사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화제되고 있는 언론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알아가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내가 했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중 두 번째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건쟁점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판례의 요지를 정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법조인들의 인적사항도 정리함으로써 법무법인의 경우 승패율을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고 판례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내가 리서치 했던 사건은 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였는데 재외근무수당의 범위와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등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판결해야하는 사건이었다. 민사법을 수강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판결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쟁점을 찾아볼 기회는 없었는데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뜻깊었다. 또한 알지 못했던 법률용어를 직접 찾아보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앞으로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더욱 넓은 견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았던 것 같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나에게 많은 의미를 줬던 봉사활동인 것 같다. 학기 중에 진행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봉사활동은 법조인을 꿈꾸는 나에게 있어서 재판절차, 다양한 소송,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사건의 쟁점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 주었으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그에 대한 해결 방법과 어떤 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또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법조인을 꿈꿔왔던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였고,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법과 관련한 직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느꼈던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느끼며 자신들의 포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또한 이 활동들을 통해 법을 앞으로 공부할 사람이 가져야 할 소양, 기본 지식, 상식들을 여러 활동을 통해 쌓을 수 있어 한 단계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소중한 기회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함을 느낀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호가 Supreme Court에 각인·선언되어 있음